

새로 발견한 ‘일본 소재 필사본 『大東輿地圖』’의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 Newly-Discovered Manuscript edition Daedongyeojido

南 權 熙 (Nam, Kwon-Hee)*

金 聖 洙 (Kim, Sung-Soo)**

藤本幸夫 (Fujimoto Yukio)***

◁ 목 차 ▷

- | | |
|--------------------------------------|---|
| 1. 서 론 | 5. 「大東輿地圖」의 판본과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의 비교 |
| 2.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의 물리적 형태와 전래과정 | 5.1 「대동여지도」 목판본과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의 특징 비교 |
| 3. 「대동여지도」 제작의 역사적 배경 | 5.2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에 나타나는 추가 기록 |
| 3.1 古山子 金正浩의 생애 | 6.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의 특징과 의미 |
| 3.2 「대동여지도」의 제작 내력 | 6.1 울릉도와 독도의 표기 |
| 4. 「大東輿地圖」의 판본과 소장처 | 6.2 두만강 하구 鹿屯島의 기록과 표기 |
| 4.1 국내 소장본 | 7. 결 론 |
| 4.2 국외 소장본 | <참고문헌> |
| 4.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대동여지도 목판 | |

<초 록>

이 연구의 대상은 ‘일본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筆寫本 『大東輿地圖』’로, 그 전래는 20세기 초 <平壤府立圖書館>에 소장되었던 자료이다. 판본과 형태적인 규모는 목판본(辛酉本, 甲子本)과 같이 22帖(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첩된 전질은 사각의 冊匣으로 한 帙을 이루고 있다. 이 지도는 筆寫하여 그린 것으로, 지명과 자연경관·역사기록 등등을 추가로 기록하고, 지역별로 채색함과 더불어 지리적인 측면에서 ‘獨島’를 추가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한국연구원> 소장 필사본 『대동여지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이 지도의 製作年代는 ‘1864년 이후 어느 시기부터 1889년 以前에 제작된 것’으로 규명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 哲宗·高宗 시대에 제작된 辛酉本과 甲子本을 바탕으로 필사하고, 특히 地名 및 지역과 관련된 地理志 내용 등을 확대 보충하여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지도에는 목판본 『대동여지도』에 관각된 기록은 빠뜨린 것이 많지 않고, 2천여 건의 補完과 追加 記錄을 통하여 국토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기여하고자 한 제작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지도는 김정호의 목판본 『대동여지도』보다 더욱 정밀하고, 獨島를 비롯한 19世紀 後期 朝鮮의 國境 및 國土全般의 情報를 提供 함으로써 매우 높은 價値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要語: 「大東輿地圖」, 金正浩, 辛酉本, 甲子本, 獨島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第1著者)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共著者)

*** 도야마(富山)대학교 명예교수(yfujim27@reitaku-u.ac.jp) (共著者)

접수일: 2017년 6월 15일 최초심사일: 2017년 6월 20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22일

<ABSTRACT>

This study distinguishes private manuscript edition of 『Daedongyeojido (大東輿地圖)』 from other editions in bibliographic point of view in four aspects. First, the 『Daedongyeojido』 personal collection is consisted of 22 printing blocks, identical with 『Daedongyeojido』 woodblock Shinyoo and Gapja edition. 22 printing blocks are foldable square packs. Geographical names, natural terrains and historical records are transcribed and all regulatory regions are colored different.

Seond, this private 『Daedongyeojido』 copied the title, publication date and proofreading records of the original author, Kim Jeong Ho from woodblock 『Daedongyeojido』. However, both ‘Chuljongsipinyunshinyoo (哲宗十二年辛酉)’ in publication date and noting Youngjo (英祖) as Youngjong (英宗: 英祖) in ‘Ulleugdo (鬱陵島) and Dokdo (獨島)’ part implies that this individual 『Daedongyeojido』 had transcribed around Gojong (高宗) period, range from 1864 to 1889.

Third, The author of this personal 『Daedongyeojido』 had augmented detailed description of Myun (面), which is a kind of administrative district to 1,500 cases and some of the cases even include Eup (邑), Lee (里) and Dong (洞). Natural grounds, public and private buildings like insular areas, mountains, river, hills, castles, palaces, towers et al are written down on the private 『Daedongyeojido』. Moreover, it depicts history of the specific region and historical figures and events.

Fourth, based on geographical features like road networks and government quarters, this 『Daedongyeojido』 contains 2,000 more records compared with other types of manuscript 『Daedongyeojido』, and the author had associated historical events with relics like castles and palaces. Thus, it can be assumed that this private manuscript 『Daedongyeojido』 had been printed by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with obvious object which is to make use of it as a map, as well as a book of geographic information.

Key words: 『Daedongyeojido』, Kim Jeong Ho, SinYu Edition, GapJa Edition, Dokdo

1. 서론

이 연구는, 최근 ‘일본에서 발견된 筆寫本 『大東輿地圖』’를 東京 現地에서 조사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이를 학계에 보고할 필요성을 느껴서 작성된 것이다.¹⁾ 조사 현장에서 一見하여 보아도,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기존 표시에 엄청나게 많은 地名・地志(地誌) 등에 사항들이 추가되어 있고, 목판본 『대동여지도』에 表記되지 않은 ‘獨島’ 등도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의 필사본 『대동여지도』(折帖本) 중 第5帖(“大東輿地圖 五”) 内部 첫머리 右側 上段에 “平壤府立圖書館, 登錄番號 ‘5782’(印記), 昭和 ‘七’(手記)年 ‘八’(手記) ‘三十’(手記)日 受入”라는 인쇄된 라벨(label)이 붙어 있다. 이로 보아 이 지도는 ‘1932년 8월 30일에 <平壤府立圖書館>²⁾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주장된다.³⁾

본 연구의 방법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金正浩가 제작한 목판본 『大東輿地圖』’⁴⁾와 이를 底本으로 하여 筆寫로 만들어진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의 내용을 비교하여, 이 필사본에 추가・보완・수정된 각종 기록을 분석함으로써 이 지도의 가치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목판본 『大東輿地圖』 등의 여러 소장처와 소장 판본의 양상 비교도 아울러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번에 발견된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의 製作年代 및 그 意義와 價値 등을 종합적으로 糾明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大東輿地圖』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수 있다.⁵⁾ 그 중 근래의 주목되는 자료들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①『大東輿地圖』의 지형,⁶⁾ ②김정호의 생애와 『大東輿地圖』의 성립,

- 1) 現地照査는 일본 소장가의 요청에 의하여 2017년 4월 중순에 東京의 所藏現場에서 3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경북대 남권희 교수와 청주대 김성수 교수 그리고 일본 富山大 후지모토(Fujimoto Yukio) 명예교수가 참여하였다.
- 2) 1924년 건설계획 수립, 1928년 5월 준공, 8월에 개관식을 하였다(平壤府立圖書館, 『平壤府立圖書館要覽』(平壤: 平壤府立圖書館, 昭和六年), 1. 參照).
- 3) 이 지도는, 1932년에 <평양부립도서관>에 소장되었다가, 그 후 昨今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緣由로 일본으로 流出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現地の 所藏者는 이 자료를 近年에 購入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2첩의 필사본 전체에서 위에서 언급한 라벨 이외의 그 어떠한 藏書印(예컨대, 북한의 공공도서관 직인 등)도 찍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지도는 1945년 解放 무렵의 어수선했던 기간에 <평양부립도서관>에서 逸失되고,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그 보존 상태가 악화되는 한편 외국으로 유출된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 4) 『大東輿地圖』가 만들어지던 시기는 19세기 中盤으로, 이 때 부터 전국적으로 편찬되기 시작한 각 지역의 邑誌 편찬과 간행 등에 힘입어 당시까지 알려져 있던 지도 제작술, 특히 井間法과 百里尺의 거리 표시 등을 적용하여 실제와 가까운 지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당시 지도의 제작에서 南北과 東西의 비율이 유사하게 맞아짐으로써 점차 정확한 거리 측량이 가능해졌고, 實學 등에 의한 새로운 지식과 思潮는 국토정보를 보다 대중화시키는 것에 이르게 되었다. 金正浩는 이동과 보관이 용이한 折帖式 지도를 목판으로 새겨, 이를 대량 보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토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備邊司> 등에서 만들어지고 유지하였던 국가차원의 국방령보다, 행정적 편의라는 차원을 넘어, 점차 밀려들어오는 세계인식에 대한 대응으로서도 『大東輿地圖』는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물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5) 선행연구는 <참고문헌>의 서지들을 참조하시기 바람.

③현재까지 알려진 판본 중 哲宗・高宗時代 판본 및 필사본에 대한 연구,⁷⁾ ④『大東輿地圖』 내의 각종표기 수록내용에 대한 연구,⁸⁾ ⑤기타 『大東輿地圖』와 연관된 타지도와의 관련 연구,⁹⁾ ⑥『大東輿地圖』를 찍은 목판에 대한 연구¹⁰⁾ 등이 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는, 목판본 『대동여지도』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물리적 외형과 地形의 표현 등은 목판본과 거의 類似하다. 하지만, 행정구역에 대한 표시・산・강・섬에 대한 추가와 특히 지형적 요소 뿐 만 아니라 해당 지역과 관련된 歷史的 事實이 대폭적으로 추가 기록되어 있음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重點的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이 지도는 목판본 『大東輿地圖』를 바탕으로 하였지만, 목판본 『大東輿地圖』에서 부족한 행정구역이나 자연지형 및 역사적 사실(地志) 등을 충실하고도 상세하게 보완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김정호의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본연구의 대상인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의 형태나 기록내용의 차이 등등을 비교・분석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일본 소재 필사본 『大東輿地圖』’의 특징과 가치를 서지적으로 導出해 보고자 한다.

2.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의 물리적 형태와 전래과정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의 照査前 초기의 전래 상태는, 물리적・화학적 여러 측면에서 훼손된 부분이 많았으나, 수리・복원 과정을 거쳐 현재의 제대로 된 모습(<그림 1> ~ <그림 4>)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 과정 중에서 지도의 汚損 부분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파손・훼손 부분을 수리・복원했던 東京<紙資料修復工房>에서 작성한 “『大東輿地圖』1点 22冊への 賦存修復 處置報告書(2017)”에 의하여, 修理・復元 以前の 狀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水害를 입은 흔적이 있다.
- ② 채색 부분이 탈색되고 있다.
- ③ 종이가 오래되고 산화된 상태이다.
- ④ 표지 등 전체적으로 종이 부분에 검은 반점과 같은 곰팡이가 퍼져 있다.

6) 임종욱 외. “목판본 『大東輿地圖』의 지명 연구.”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제22권 제3호(2010). 122-141.
임종욱.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청구도』의 지명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1.
7)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 지도학 발달사』 (수원: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09), 261-278.
8) 장진숙,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大東輿地圖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학술대회, 2014.).
9) 김기혁, “우리나라 도서관・박물관 소장 고지도와 大東輿地圖,” (한국고지도연구학회 학술대회, 2008.).
10) 소재구, “金正浩 原作 大東輿地圖 木板의 調査 【資料】,” 『미술자료』 제58호(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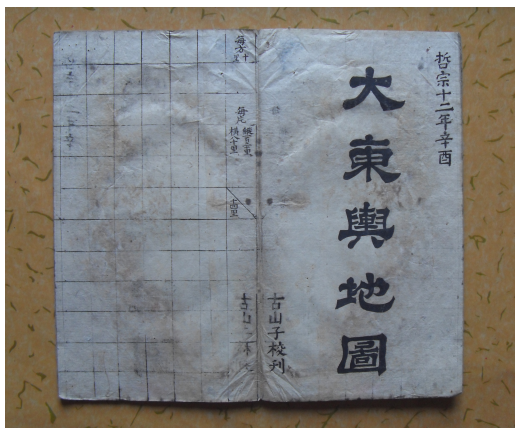
- ⑤ 개별 안에서 표지가 떨어지고 있다.
- ⑥ 접힌 부분이 점차 굽어지는 현상이 보인다.
- ⑦ 수소이온 농도 측정 결과 처리 전에는 pH 6.0으로 약산성을 나타내었다.
- ⑧ 모서리에 일부 찢어진 부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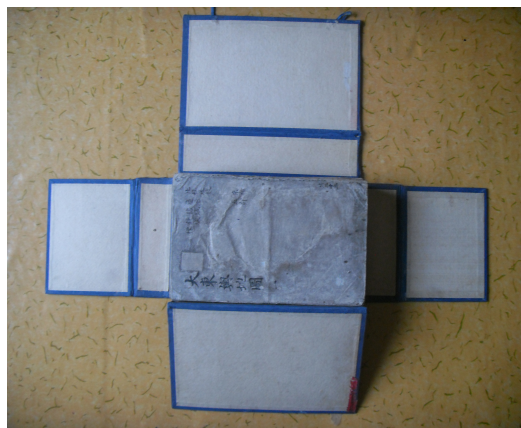
<그림 1> 필사본 「대동여지도」 22첩의 표지



<그림 2> 펼쳐진 전체 모습



<그림 3> 제 1첩의 표제면



<그림 4> 포갑장정의 외형

수리·목북 후 현재의 이 지도는, 위의 여러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여, 채색된 필사본의 완전한 지도로서 또 첨가·보완된 여러 기록이 수록된 地志 자료로서의 훌륭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림 1> ~ <그림 4>와 같은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折帖本 22帖) 중 第5帖(“大東輿地圖 五”) 内部 첫머리 右側上段에 “平壤府立圖書館, 登錄番號 ‘5782’(印記), 昭和 ‘七’(手記)年 ‘八’(手記) ‘三十’(手記)日 受入”라는 라벨(label)이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보아 이 지도는 일제강점기인 1932년에 <평양부립도서관>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도의 전체 규모는 총 22첩(帖)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첩은 12면으로 되어있고, 제2첩은 18면, 제3첩은 14면, 제4첩은 14면, 제5첩은 16면, 제6첩은 18면, 제7첩은 14면, 제8첩은 12면, 제9첩은 8면, 제10첩은 12면, 제11첩은 12면, 제12첩은 14면, 제13첩은 12면, 제14첩은 14면, 제15첩은 12면, 제16첩은 12면, 제17첩은 12면, 제18첩은 12면, 제19첩은 12면, 제20첩은 10면, 제21첩은 2면, 제22첩은 4면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은, 포갑 겉장 내부 상단에 붉은 천이 붙어 있는데, 이 천에는 墨書로 ‘大東輿地圖’가 左에서 右로 적혀있고, 포갑 옆면에도 墨書로 ‘大東輿地圖’가 좌에서 우로 적혀있다. 이 묵서는 근래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연구 대상본 『大東輿地圖』의 紙質은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사용했던 ‘닥종이(楮)’이며, 그 발폭은 ‘1.0cm’, 축수는 3cm 당 ‘14축’ 정도이다. 종이의 두께는 ‘0.13-0.16~0.33mm’이고, 세로 발끈폭은 ‘1.8cm’이다. 책 내부 색차값은 ‘L: 72.3, a+: 5.5, b+: 12.7’이고, 책 표지의 색차값은 ‘L: 67.2, a+: 4.0, b+: 6.0’이다. 책을 덮고 있는 포를 포함한 길이는 ‘세로 30.3cm, 가로 17.8cm’이다. 책의 능화문은 ‘사방연속 능화문’이고, 배접은 회계문서와 간찰이 일부 확인되며,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3. 『대동여지도』 제작의 역사적 배경

3.1 古山子 金正浩의 생애

古山子 김정호가 『大東輿地圖』를 제작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¹¹⁾ 金正浩의 신분에 대한 기록 역시 단편적인 몇 가지 문헌을 참고하여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¹²⁾ 김정호의 출생지에 대한 가설은 두 군데로 집약되는데 金正浩가 저술한 지리지인 『東輿圖志』¹³⁾와 『輿圖備志』¹⁴⁾를 근거로 한다.¹⁵⁾ 김정호의 생몰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교우관계와 편찬한 지도를 바탕으로 추정해

11) 그가 언제 어디서 출생하였고 주로 어디서 활동하였으며, 어떤 생을 살았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 후기의 地理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며, 비교적 가까운 19세기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生沒年조차 알 수 없다는 이유에는 김정호의 신분적인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2) 먼저 1862년(철종 13)에 유재건 저술의 인물행적기인 『里鄉見聞錄』에 김정호의 이름이 나온다. 『里鄉見聞錄』은 하층민 출신 중에서 뛰어난 인물들을 모은 傳記로 여기에 수록된 점을 미루어 볼 때, 김정호는 하층 계급 출신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로 申櫓의 『大東方輿圖』의 서문에서 古山子를 金君百源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양반 출신인 신현과 김정호는 신분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호 家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 역시 그의 신분을 알 수 없게 하는 원인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룬 당시의 업적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단순한 미천한 평민이 아니라 풍부한 학식과 개혁적 성향을 지닌 뛰어난 지식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3) 『東輿圖志』 또는 『大東輿地通考』는 『靑邱圖』 제작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편찬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자료가 편찬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靑邱圖』가 1834년(순조 34)에 제작되었으므로, 아마도 1822~1834년으로 추정된다.

14) 1853년(철종 4)부터 1856년(철종 7)에 金正浩와 崔愷煥이 작성한 지리지.

15) 첫 번째는 『東輿圖志』의 편자가 “月城 金正浩 圖編”으로 표기된 것을 토대로, 月城이 황해도 甑山의 옛 명칭인

볼 때, 이병도는 ‘실학자 최한기(1803~1877)와 막역한 친구 사이였으므로 연령이 서로 비슷했다’(1969)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大東輿地圖」의 再刊과 「大東地志」의 완성이 모두 高宗 元年(1864)에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 보아, 그가 순조·헌종·철종·고종 초의 4대를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⁶⁾ 그리고 「大東地志」의 내용을 살펴보면, 高宗 시대에 명성왕후 민씨가 고종의 왕비로 기록되어 있으므로,¹⁷⁾ 김정호는 적어도 1866년까지 생존했다고 볼 수 있다.

최한기의 「靑邱圖題」에 의하면, ‘김정호는 20세 안팎부터 지도와 지리서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는 기록에서, 그가 새로운 지도와 지리지를 만들고자 계획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김정호가 처음 만든 지도는 1834년에 간행된 「靑邱圖」 2책으로, 1840년대 말까지 3차에 걸친 개정판 「靑邱圖」 2책·4책 등이 간행되었다. 3번째 지도부터 지도의 제작·교정·필사·이동 및 지리지의 편찬방법 등 ‘범례’를 수록하여 근대지도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30세 전후인 1834년 훨씬 이전부터 순조와 헌종 시대에 걸쳐 이루어진 2책의 「東輿便攷」¹⁸⁾가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기록을 참고·검토하여 지리지로서의 편찬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1861년에 木板으로 간행된 「大東輿地圖」 22첩은, 「靑邱圖」와 내용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많지만, 이것도 여러 자료를 비교·검토한 후 바른 내용으로 교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地志가 조선후기 正祖 때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되어 純祖·哲宗 年間까지 전국의 각 군·현·읍 단위의 邑誌(邑志)가 각 지역별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김정호의 새로운 지도와 지리지 편찬에 대한 의욕은 주변 여러 사람들의 후원에 힘입어 그 결실을 본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地理志인 「東輿圖志」¹⁹⁾ 20冊이 1834년부터 1840년대까지 편찬·연구되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도가 빠져있고 또한 전통적인 지리지와는 구성항목이 달랐으며, 이후 계속적인 보완과 수정을 거쳐 그 서문이 1861년에 작성되었다.

김정호에 관한 속설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옥사설’²⁰⁾과 ‘백두산 등반 및 전국답사설’²¹⁾이다.

점을 감안한다면, 김정호는 ‘황해도 甑山 사람’이라는 가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輿圖備誌」에서 “鰲山 金正浩圖編”으로 표기된 것을 토대로, ‘김정호는 靑道 출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저자가 쓴 地理志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명이 이름 앞에 나온 점과 당시의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옛 지명을 사용한 점은 다소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며, 아직까지 김정호의 출생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정호의 정확한 출생지는 추정에 그칠 뿐이다.

16) 박영한, “고산자 김정호의 생애 고찰,” 『지리학논총』 42(2003), 9.

17) 고종 3년(1866)에 고종은 민비를 왕비로 맞아들였다.

1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20) 특히 ‘옥사설’은 일제시대에 제기되어 1934년에 발행된 교과서인 『조선어독본』에 ‘金正浩傳’이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 내용은 丙寅洋擾가 일어남으로 자기가 간수하였던 「大東輿地圖」를 어느 대장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흥선대원군이 보고 국가적인 기밀 누설을 우려하여 목판을 불사르고 김정호 부녀를 옥에 가두었고 그는 옥사하였다.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옥사설에 대한 반박으로 이병도(1969)는 「大東輿地圖」의 板刻이나 印刷本 또는 傳寫本이 아무런 수난을 겪은 흔적이 없이 그대로 전해오고 있다는 점을 들었고 이상태는 나아가 ‘김정호의 「大東輿地圖」 제작을 후원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처벌도 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 ‘유재건의 「里鄕見聞

그러나 『大東輿地圖』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며, ‘지도의 제작에는 현지답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었다. 따라서 『大東輿地圖』는 다양한 지리 자료를 바탕으로 草稿가 만들어졌고, 實測을 병행한 현지답사가 이루어졌을 것²²⁾으로 추정하고 있다.

3.2 「대동여지도」의 제작 내력

조선 前期에 地圖는 오직 官에서만 제작이 가능했고, 民間에서는 지도의 소유조차 불가능하였다. 17~18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실학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민간의 지도 제작도 활기를 띠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지도가 鄭尙驥(1678~1752)가 제작한 『東國地圖』로, 이 지도는 최초로 ‘百里尺’을 사용한 지도였으며, 이후 縮尺을 사용한 지도에 큰 영향을 끼쳤고, 19세기 김정호가 만든 지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호는 『大東輿地圖』를 제작하기에 앞서 이미 2개의 지도를 완성하였다. 그가 최초로 만든 지도인 『靑邱圖』는, 정확한 제작연도는 알 수 없지만, 실학자 崔漢綺가 쓴 題文을 토대로 1834년 혹은 그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제문과 김정호가 작성한 『靑邱圖』〈범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김정호는, 그가 참조한 지도책의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기존의 지도는 눈금선표를 두고 고을 면적의 크기를 막론하고 반드시 한 장의 종이 안에 그려야 했기 때문에, 크기가 들쭉날쭉하고 눈금선의 간격도 서로 달라 정확도가 떨어졌음을 알았다. 또한 눈금선을 그려 넣음으로써 그 위에 물줄기와 산줄기를 그려 넣어 경계를 살피기가 어렵고, 334개의 고을을 각각 1폭에 그렸기 때문에 작은 고을은 넓어지고 큰 고을은 작아지는 폐단이 있었음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김정호는 고을의 크기에 따라 달랐던 눈금선을 확대와 축소를 통해 동일하게 만들고, 초대형의 朝鮮全圖를 그려서 남북 29층·동서 22판으로 나누어 2권의 책으로 묶고, 10리 간격으로 그어진 책받침을 대고 그리는 방법을 개발하여 지도 위의 눈금선을 없앴다.

또 김정호는 스스로 ‘『靑邱圖』가 가장 자세한 지도책이지만 정확성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錄』에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른바 ‘옥사설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날조 및 조작된 것(이상태(1991), 139-144.; 이상태, “고산자 김정호 옥사하지 않았다,” 『월간경기』 (1999), 7월호, 38-42.)’으로 추정하였다.

- 21) 또 ‘백두산 답사설 및 전국답사설’의 경우, 1925년 동아일보 기사에는, 金正浩가 백두산을 7회 등정하고 八域의 산천을 살살이 답사한 것으로 나오며, 『朝鮮語讀本』에는 팔도답사 3회, 백두산 등정 8회로, 문일평(1941) 역시 ‘실제 답사로써 기존 지도의 수정과 정확성을 기했다’며 이른바 ‘등반설’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광복 이후에도 다시 의견이 엇갈리게 되어 정인보는 『瀟園國學散稿』에서 ‘백두산 등반 7회설’을(정인보, 『瀟園國學散稿』 (서울: 문교사, 1955)), 홍이섭(1964)과 정형우(정형우, “김정호, 발로 엮은 한국지도,” 『한국과 인간상』 3 (서울: 신구문화사, 1974), 388-399.)도 ‘백두산 등반설’과 ‘전국 답사설’을 주장하였으나, 이병도(1969)는 백두산 왕래설과 전국 답사설을 부인하였고, 자료보완을 위한 부분 답사설만 인정하였다. 전상운도 ‘김정호가 백두산을 7차례나 등반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는지 의문을 표하였고(전상운, 『한국과학기술사』 (서울: 정음사, 1976), 342-348.), 이상태는 ‘『大東輿地圖』는 직접 실측하여 만든 지도가 아니라 기존의 여러 고지도와 문헌을 참고로 만들어졌다(이상태, “고산자 김정호 옥사하지 않았다,” 『월간경기』 (1999), 7월호, 38-42.)’고 주장하였다.

- 22) 박영환(2003), 13.

지도의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摸寫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국가 차원에서의 교정과 새로운 地理志의 편찬을 당부하였다. 이를 통해 古山子의 정교한 지도에 대한 남다른 욕망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정호가 두 번째로 제작한 지도는 「東輿圖」로, 그는 일찍이 「靑邱圖」 제작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도의 제작에 몰두하여, 「靑邱圖」에서 드러난 단점들을 극복하고 지도의 이용에서도 효율성을 높인 지도를 제작하여, 그 결실로 나타난 것이 「東輿圖」였다.

현재 「東輿圖」 제작과 관련된 기록은 申櫟(1810~1888)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어서 ‘大東方輿圖序’의 전문에서 申櫟과 김정호와의 관계, 「東輿圖」의 제작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²³⁾

(중략) ...나는 일찍이 우리나라 지도에 뜻을 두고 비변사와 규장각에 소장된 것, 오래된 집안에 좀먹다 남은 것들을 널리 수집하여 증정하고, 여러 본들을 서로 참고하고, 여러 책들에 근거하여 합쳐서 편집하였다. 이리하여 金百源[金正浩]에게 물어 그것을 맡겨 만들게 하였다. 가리켜 증명하고 입으로 전해주기를 수십 년이나 하여 비로소 한 부가 만들어졌는데 모두 23권이다. 분합이 마땅함을 따르고, 열람하기에도 심히 편리하다. 맥로와 선로가 명료하여 의혹의 여지가 없다. 명산·산록의 특치·연치·첩치와 흐르는 하천과 시내의 회류·분류·병류·절류·군현·방리의 경계, 도리의 거리, 그리고 우역·진보·성루·창해·사찰·봉수·관해·영액 등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다. 분을로는 넓이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고, 준망으로는 원근의 실체를 바로 잡을 수 있고, 도리로는 경유하는 곳의 수치를 정할 수 있다. 고하, 방사, 우직을 모두 여기서 살필 수 있다...(중략)

그 서문에 의하면, 申櫟은 김정호(金百源)에게 맡겨 지도를 완성하였는데, 당시 신헌은 고위 무관으로서 <규장각>·<비변사> 등의 지도를 열람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으므로, 그의 도움으로 김정호가 관찬 지도 자료를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헌은 수십 년이 걸려 지도 1부를 완성했는데 ‘23권(帖)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헌이 제작한 「大東方輿圖」는 필사본으로 전체 23帖으로 이루어진 지도라 할 수 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東輿圖」도 23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문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지도의 내용이나 형식이 목판본 「大東輿地圖」와 거의 일치할 뿐 아니라 나아가 「大東輿地圖」보다 地名數가 5,548개 정도 많게 나타난다.

「東輿圖」에는 제작시기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東輿圖」의 제13첩 여백란에 표기되어 있는 ‘仁陵’의 위치가 ‘憲陵右岡’으로 되어 있다. 인릉은 純祖의 능으로, 원래 교하현에 봉안하였다가 1857년(철종 7)에 현릉 우측으로 천봉이 결정되어 그 해 10월에 천봉이 완료된 것으로 볼 때, 「동여도」는 1857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 지도는 「大東輿地圖」의 체제·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大東輿地圖」를 판각하기 위해 제작한 선행지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추론에 근거하면, 「東輿圖」는 1857년 이후부터 「大東輿地圖」가 제작된 1861년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시기에 申櫟이 유배를 떠났었기에, 그 제작시기 추정에는

23) 정철현, “김정호의 지도제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2003), 33-35.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²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김정호는 1861년에 목판본 『大東輿地圖』를 완성하였고, 이 지도의 표지에는 “當宁²⁵⁾十二年辛酉 古山子校刊”이라 하여 간기와 제작자를 표기하였다. “當宁十二年”은 ‘哲宗 12년’ 즉 1861년(辛酉)에 해당하므로, 『大東輿地圖』는 1861년에 제작된 것이다.

『大東輿地圖』 甲子本(高宗時代: 1864)에는 ‘地圖類說’이라는 글이 실려 있어서 지도제작에 대한 김정호의 견해를 볼 수 있다. 그는 ‘左圖右書의 자세로서, 한 지역을 알고자하면 지도와 地誌(地誌)를 통일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단순한 개인적인 학문의 성취나 흥미의 목적이 아니라, 外敵을 막고 나라를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중요한 수단으로써의 지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김정호는 많은 지리서를 탐독하고 가장 정교하고 정확한 지도를 만들어 내고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지도를 木板本으로 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신분적 한계를 지닌 개인이 『大東輿地圖』라는 방대한 지도를 목판으로 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東輿圖』의 제작 과정과 같이, 신헌 등과 같은 재력가의 후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861년에 제작된 『大東輿地圖』는 이후 한차례 수정을 거쳐 1864년(고종 즉위년), 즉 “當宁元年甲子”년에 다시 印出되었다. 목판본 지도의 수정 간행은 흔치 않은 일임에도, 김정호는 오류를 바로잡고 더욱 정확한 지도를 만들려는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즉 수정한 사항을 보면, 오자를 수정하고 잘못 그려진 지형을 수정했으며 驛名과 같은 地名의 추가, 잘못된 郡縣 경계의 수정, 古縣의 위치 이동, 도로망의 수정 등 실로 미세한 부분까지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였다.

4. 『大東輿地圖』의 판본과 소장처

『대동여지도』의 확인된 목판본은 辛酉本과 甲子本 두 종류가 존재한다. 칠종 신유본은 1861년(哲宗 12)에 제작된 초간본이다. 고종 갑자본은 1864년(高宗 元年)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존 신유본版(1861)을 수정·보완된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大東輿地圖』의 목판본은, 신유본과 개정판인 갑자본으로 나누어지지만, 갑자본에서 한 번에 신유본의 오류나 누락된 사항 등이 수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신유본의 초기본으로 알려진 성신여대 소장 판본부터 시작해서 갑자본이 나오기 전까지 수정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서, 갑자본이 나오기 직전의 신유본의 저본 목판은 갑자본과 비교해서 크게 다른 점이 없을 정도 보충·교정되었다.

초기의 신유본부터 갑자본의 최종본에 이르기까지 『大東輿地圖』의 변천을 저본과 판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정철현(2003), 35.

25) 當宁: ‘그 당시의 임금(王)’을 의미함. 즉 ‘당시 임금의 재위’를 뜻함.

새로 발견한 일본 소재 필사본 「大東輿地圖」의 서지적 연구

<표 1> 대동여지도의 판본과 국내·외 소장 현황

국내	35종	신유 15종	갑자 3종	필사 12종	外 목판 5종
일본	17종	신유 7종	갑자 2종	필사 7종	판본미상 1종
미국	3종	신유 2종	-	-	판본미상 1종

4.1 국내 소장본

4.1.1 哲宗 辛酉板本

<표 2> 哲宗 辛酉板本 국내 소장처

연번	소장처	명칭	판본	관리번호 (청구번호)	비고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大東輿地圖	辛酉本	K2-4597 1	
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大東輿地圖	辛酉本	K2-4597 2	
3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大東輿地圖 (改裝)	辛酉本	47(7-마-20)	보물 850호
4	부산대학교 도서관	大東圖	辛酉本	2-11/421-22	채색목판본
5	영남대학교 도서관	靑丘全圖	辛酉本	989-11 v23	
6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大東輿地圖	辛酉本	B16JB-0001	22첩 채색목판본 추정
7	국사편찬위원회	大東輿地圖	辛酉本	B16JB-1	22첩 朝鮮史編修會 舊藏本
8	서울역사박물관	大東輿地圖	辛酉本	서울역사003078	보물850-2호
9	화봉박물관	大東輿地圖	辛酉本	-	
10	국립중앙도서관	大東輿地全圖	辛酉本	古朝61-02	左朝鮮日本國 公使館 舊藏本 채색목판본
11	국립중앙도서관	大東輿地圖 (22단)	辛酉本	古朝 61-90	22단 채색
12	국립중앙박물관	大東輿地圖	辛酉本	신수(新收)-019997 -000	
1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大東輿地圖	辛酉本	奎10333	22첩 채색목판본
1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大東輿地圖	辛酉本	古4709-5	22첩 채색목판본
15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海左輿圖	辛酉本	971(7-마-65)	20첩

목판본 「대동여지도」 중 辛酉本은,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는 총 15종이 소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본은 현재 남아있는 판본 중 初期의 신유본 판본이라고 알려져 있는 판본이다. 이 지도는 표지가 있지만 후에 개장된 것이다. 또한 표제·지도유설·도성도·통계 부분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초기의 신유본인 <장서각> 소장본(K2-4597) 또한 표제·지도유설·도성부·통계 부분이 없으며, 표지가 없고, 15책 ‘보은’에서는 20리 지점에 의미가 없는 직사각형이 인쇄되어 있다. 이들 판본은 ‘삼학진’을 제외하고는 수정사항이 거의 보이지 않는 오류가 많은 판본이다.

<존경각> 소장본은, 표제에 신유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註記가 추가되기 시작했으며, 都城圖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신미도’의 지명 및 목장 기호가 삽입되었고, ‘감포’ 북쪽에 ‘동진고현’ 표기가 추가되었다.

<부산대 도서관> 소장본은 표지와 필사로 지도유설·통계 면이 추가되고, ‘신미도’와 ‘동진고현’의 수정을 포함해서 ‘황초령’의 지형오류가 수정되었고, ‘보은’ 인근의 사각형도 삭제되어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기존의 ‘삼수’와 ‘장진’의 잘못된 경계선이 삭제되었고, ‘통달역’이 필사로 추가되었다. 또한 ‘월송진’의 지명도 필사 추가되었고, ‘동진고현’의 위치가 감포 남쪽으로 옮겨졌으며, ‘안언역’의 위치 수정 및 墨線으로 도로 표기가 되었다.

그 밖의 ‘또 다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에서는 신유본의 가장 마지막 판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판본으로, 모든 『大東輿地圖』 판본을 아울러 가장 완성도가 높은 판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표제·지도유설·도성도·경조오부도를 갖추고 있고, 2책에도 전국통계를 갖추고 있다. 세부적인 수정사항에 관해서는 ‘십만령’의 잘못된 경계선이 수정되었고 필사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강계’의 잘못된 경계선(牛項峯-火通峯)이 삭제되었고, 다시 ‘안언역’의 도로표기가 사라졌다.

4.1.2 高宗 甲子板本

<표 3> 高宗 甲子板本 국내 소장처

연번	소장처	명칭	판본	관리번호 (청구번호)	비고
1	국립중앙박물관	大東輿地圖	甲子本	新收-000521-000	21첩 목판본
2	거창박물관	大東輿地圖	甲子本	-	21첩 경남유형문화재 275호
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大東輿地圖	甲子本	古4709-6	갑자년 수정 보물850-3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新收-000521-000)부터는 甲子本의 초기 판본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표제에 ‘當寧元年甲子’라고 새겨 있고, 신유본 최종단계의 수정사항

새로 발견한 일본 소재 필사본 「大東輿地圖」의 서지적 연구

등이 적용되어 있으며, 그 외에 달라진 점은 보이지 않는다.

4.1.3 板本 未詳

<표 4> 板本 未詳 국내 소장처

연번	소장처	명칭	판본	관리번호 (청구번호)	비고
1	서울역사박물관	東輿圖	-	서울역사003069	23첩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역사박물관>에는 판본 미상의 「동여도」가 소장되고 있다.

4.1.4 筆寫本

<표 5> 筆寫本 국내 소장처

연번	소장처	명칭	판본	관리번호 (청구번호)	비고
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大東輿地圖	필사본	奎12380	22첩 모사 (펜글씨 삼입)
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大東輿地圖	필사본	古4709-4	22첩 모사
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東輿圖	필사본	奎10340	22첩 채색 면지명 추가
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大東方輿全圖	필사본	奎10341	22첩 채색
5	재단법인 한국연구원	大東輿地圖	필사본	-	채색, 독도표기 최초확인
6	고려대학교 도서관	朝鮮古分道地圖	필사본	B-10 A-83	4책(모사) 채색
7	영남대학교 도서관	大東全圖	필사본	989-11	22첩(수정) 채색
8	국사편찬위원회	東輿圖	필사본	B16JB1-2	22첩 중 12첩 소장, 채색
9	국립중앙박물관	大東輿地全圖	필사본	M-133	22첩 채색
10	국립중앙박물관	東輿	필사본	M-127	14첩 채색
11	국립중앙박물관	東輿圖	필사본	新-3659	22첩 채색
12	국립중앙도서관	大東輿地圖	필사본	古朝61-01	18첩 채색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동여지도」 등의 筆寫本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을 비롯하여 국내에 현재 12종이 소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한국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 「대동여지도」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1차 조사된 것으로, 본 연구대상인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4.2 국외 소장본

4.2.1 일본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일본 소재 『대동여지도』의 신유본·갑자본·필사본 등의 소장 상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4.2.1.1 哲宗 辛酉 木板本

<표 6> 哲宗 辛酉 木板本 일본 소장처

연번	소장처	명칭	판본	관리번호 (청구번호)	비고
1	國立國會圖書館	東輿圖	辛酉本	217-37	
2	國立國會圖書館	大東輿地圖	辛酉本	292.1038	Ki229d
3	텐리도서관	大東輿地圖	辛酉本	292.1113	
4	동양문고	大東輿地圖	辛酉本	VII-2-158	22첩 채색
5	동양문고	大東輿地圖	辛酉本	VII-2-158-1	22첩 채색 印: 在山樓蒐書之一 藏書記: K. Mayema
6	동경대학교 도서관	大東輿地圖 20帖	辛酉本	J81-52	
7	코베시립박물관	大東輿圖	辛酉本	南派Collection 朝鮮關係圖164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일본 <國立國會圖書館> 등 7개 기관에서 '1861년 간행 목판본 『대동여지도』 辛酉本'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4.2.1.2 高宗 甲子 木板本

<표 7> 高宗 甲子 木板本 일본 소장처

연번	소장처	명칭	판본	관리번호 (청구번호)	비고
1	동경대학교도서관	大東輿地圖 22帖	甲子本	5-46 夕-5	
2	동양문고	大東全圖	甲子本	VII-2-159	20첩 채색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영대학교 도서관>과 <동양문고>에 각각 목판본 『대동여지도』 甲子本이 소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韓國研究院 古文獻』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4.2.1.3 筆寫本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중 <고베시립박물관> 소장본은 신유본 월경지 부분이 기존 실선으로 표기했던 것에서 점선으로 수정된 것이 보인다.

또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VII-2-159)은 갑자본의 마지막 단계이자 「大東輿地圖」의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부터 지도유설과 통계 부분이 빠지기 시작했고, 또한 이 단계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에서 완성된 「大東輿地圖」 판본의 체계가 점차 해체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 밖에 판본 구분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대동급기념문고>의 「大東輿地圖」(12-8-2162)의 22첩도 있다.

<표 8> 筆寫本 일본 소장처

연번	소장처	명칭	판본	관리번호 (청구번호)	비고
1	동양문고	大東輿地圖	필사본	Ⅶ-2-245	18첩 채색 印: 幣原圖書 受贈記: 和十六年(1941)九月一日幣原坦殿惠賜
2	동양문고	大東輿地圖	필사본	Ⅶ-2-245	24첩 채색 印: 在山樓蒐書之一 藏書記: 前間氏所藏, 前間恭作이 圖面에 赤色펜으로 각종 註 添入
3	동양문고	東輿圖	필사본	Ⅶ-2-192	불분권 2책 채색 印: 幣原圖書 受贈記: 昭和十六年(1941)九月一日幣原坦殿惠賜
4	오사카부립 도서관	靑邱全圖	필사본	韓5-110	불분권 23책
5	교토대학교 도서관	大韓輿地圖	필사본	河合 7-8	불분권 22첩
6	국회도서관	大東輿地圖	필사본	292.1038 ki229d	22첩
7	국회도서관	朝鮮古圖	필사본	848-167	1책

4.2.2 미국

4.2.2.1 哲宗 辛酉 木板本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미국에는 <버클리대학 도서관> <밀워키주립대학 도서관>에 辛酉本이 각각 소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哲宗 辛酉 木板本 미국 소장처

연번	소장처	명칭	판본	관리번호 (청구번호)	비고
1	버클리대학도서관	大東輿地圖	辛酉本	Asami 20.43	21拓鋪
2	밀워키주립대학 도서관	大東輿地圖	辛酉本	(AGS) (RARE) At.469 A-1861	2009년 발표됨

4.2.2.2 版本 未詳

현재까지 서지자료만을 통하여 확인되는 판본미상의 『大東輿地圖』는 <하버드대학 엔칭도서관>의 판본이 소장되고 있다.

4.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대동여지도 木板²⁷⁾

『大東輿地圖』의 신유본과, 신유본을 수정한 갑자본을 인출한 木板은 1995년 12월 중순 <國立中央博物館>에서 일부 해당 목판을 소장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모두 11판으로 상태도 매우 양호하였다. 그 목판은 1923년에 <朝鮮總督府博物館>에서 『大東輿地圖』 목판을 처음 구입 수장해 온 것으로, 이후 1931년 경성제국대학에서 개최한 『古圖書 展示會』에는 총독부박물관 소장의 『大東輿地圖』 목판 2장을 전시하였고, 목록에서는 전시품 이외에 수 십 매의 목판을 개인이 비장하고 있다고 밝힌 적도 있다.

이 목판의 형태적인 두께는 1.5cm 내외로 매우 얇고 손잡이(마구리)도 없으며, 규격은 가로 43cm, 세로 32cm로 일반적인 책판과는 다른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또 일부 목판은 앞면에 지도를 새겼으나 뒷면에는 지도와 전혀 상관없는 書冊의 계선을 새기기도 하고, 형태를 알 수 없는 새김 자국을 내기도 하였다. 어떤 판목은 지도를 완전히 새기지 않고 중간을 미완성의 상태로 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표제의 목판은 刊行年度를 표기하는 곳에 교정과 수정·보완할 경우를 대비하여 따로 간행년도를 새겨서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장방형의 홈을 파내었고, 板刻이 틀렸을 경우 이를 파내거나 수정을 한 목판도 있었다. 한 면에 2개 또는 3개의 지도들은 대부분 한 圖面에서 육지보다 바다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들로서 해당 부분만 먹을 바르고 찍어내면 나머지 여백은 자연스럽게 바다로 표현되는 방법으로 목판의 수량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圖面들을 한 판에 새기면서 생긴 여백을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

이 목판들은 총 11판에 표제 및 27개의 지도가 판각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大東輿地圖』의 총 126판 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며, 현재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남아 있는 『大東輿地圖』 목판 1장과 같다.

형태적인 측면에서, 표제의 목판에는 ‘大東輿地圖’라는 제목을 중앙에 세로로 새겨지고, 원편 상단에는 간행년도를 표기하는 자리를 구획하여 ‘當’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나머지 구간은 목판을 인출할 때마다 해당년도의 왕의 재위년도와 간지를 따로 새겨 끼우도록 홈을 파 놓았다. 또한 오른편 하단에는 ‘古山子校刊’이라는 다섯 글자가 판각되어 있었다. 그러나 咸鏡道 長津, 慶尙道 星州·永川 등지의 도면에는 판각의 수정흔적이 있는데, 단 咸鏡道 長津의 경우는 수정이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

27) 소재구(1997).

이 「大東輿地圖」木板은 재질이 연하고 매우 가벼우며 두께도 얇은 데다 목판의 양쪽에는 마구리도 부착하지 않았다.

이 목판들은 모두 11판으로 여기에는 표제 및 24면이 판각되어 이는 「大東輿地圖」의 총 126면 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大東輿地圖」의 完刻에 소요된 목판은 대략 55~60판으로 추정된다.

<표 1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대동여지도」 목판 현황

판	앞	뒤
1	표제	無刻(두께가 얇아 판각 어려움)
2	咸鏡道 長白山 (4층 ²⁸⁾ 5-6면)	咸鏡道 甲山 (4층 7-8면)
3	咸鏡道 長津 十萬嶺 (4층 11-12면)	咸鏡道 北靑 聖代山 (5층 7-8면)
4	平安道 熙川 白山 (6층 13-14면)	慶尙道 東萊 (19층 6면)
		全羅道 黑山島 (19층 15-16면)
5	咸鏡道 明川 馬乳山 (6층 3-4면)	平安道 龍川 (8층 19면)
	咸鏡道 端川 (6층 13-14면)	咸鏡道 北靑 馬養島 (7층 8면)
		京畿道 喬洞, 島嶼 (13층 15-16면)
6	咸鏡道 咸興 (7층 9-10면)	書冊의 패선과 불분명한 판각
7	平安道 雲山 (7층 15-16면)	平安道 成川, 江東 (9층 13-14면)
8	平安道 德川, 介川 (8층 13-14면)	平安道 安州, 泰川 (8층 15-16면)
9	平安道 陽德 (9층 11-12면)	全羅道 務安, 長興 (19층 13-14면)
10	慶尙道 大邱, 永川 (17층 7-8면)	慶尙道 居昌, 星州 (17층 9-10면)
11	慶尙道 蔚山 (18층 5-6면)	全羅道 光州, 靈光 (18층 13-14면)
		全羅道 智島, 荏子島 (18층 15면)

김정호는 「大東輿地圖」목판을 完刻하여 初刻本(辛酉本)을 찍어 내고 다시 몇 차례의 교정을 보아 수정본을 찍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수정본(甲子本)의 교정된 면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大東輿地圖」목판의 수정 흔적이 일치한다. 또 이 목판들과 숭실대학교 박물관의 목판도 동질의 피나무 재료를 사용하였고 規格과 刻法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1861년(哲宗 12)에 완성된 「大東輿地圖」는 여러 번 印出되는 과정에서 종이의 질과 수분에 의한 수축의 차이 등으로 현재에 알려진 판본 간에는 약간의 규격 차이가 있으며, 목판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의 증발로 수축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 목판에서 수정된 구체적인 부분은 咸鏡道 長津의 十萬嶺 부근의 境界, 慶尙道 草溪의 三鶴津, 慶尙道 星州의 安僊驛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정작업 당시 咸鏡道 長津과 十萬嶺 부근의 경계는 교정하면서 誤刻된 부분을 깎아 내기만 하고 미처 수정을 하지 못하였다. 慶尙道 安僊驛은 당시의 행정상 그 위치가 변동됨에 따라 원위치를 도려낸 흔적이 있고 새 위치에는 板을 도려내고 여기에

28) 층(層): 단(段); 고지도학에서는 ‘층’·‘단’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書誌學的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층’ ‘단’은 예컨대 ‘4층’은 ‘第4帖의 木板’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정확하다고 본다.

安偃驛의 글자를 새로 새긴 刻字片을 부착하였다. 한편 慶尙道 三鶴津은 없었던 기록을 새로 추가하기 위하여 역시 板을 도려내고 三鶴津이라는 埋木을 끼웠으나, 현재 일부분은 목판에서 빠져버리고 도려낸 흔적이 남아 있다.

한편 숭실대학교 박물관 소장 『大東輿地圖』 목판은 원래 김양선이 일제 강점기에 수집한 것으로 당시에는 다량의 목판을 소장하고 있었으나, 6.25전쟁 중 피난과정에서 모두 없어지고 단 한 장만 남게 되었다고 전한다.

1861년에 완성된 『大東輿地圖』 목판을 찍은 책들은, 종이 질이 서로 다르며, 여러 차례의 장정 보완을 위한 배접과정을 거치면서 수분의 흡수와 건조과정이 달라, 같은 판면이라도 종이의 수축비율이 서로 다르다. 여러 소장처에 있는 같은 면의 지도라도 제각기 규격 차이가 나며 원 목판도 약 100년이 넘는 오랜 기간이 흐르면서 세로면이 약 4mm 정도 수축되었다.



<그림 6> 대동여지도 표지 목판



<그림 7> 경상도 대구의 목판²⁹⁾

5. 『大東輿地圖』의 판본과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의 비교

5.1 『대동여지도』 목판본과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의 특징 비교

목판본 『大東輿地圖』는 이전의 『靑邱圖』에 비해 많은 발전을 하였다. 그 주요한 변화로 『靑邱圖』는 索引圖인 『本朝八道州縣圖總目』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반해서 『大東輿地圖』는 형태적으로 달리 하며 단별로 이어 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도의 외각에 여백을 두기 어려웠다. 즉 동쪽과 서쪽·남쪽과 북쪽을 이어보기가 불편했던 『靑邱圖』에 비해, 折帖 형식인 『大東輿地圖』는 지도를 보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동여지도』에서는 『靑邱圖』에

29) 국립경주박물관·상주박물관 공편, 『慶尙北道 1314-1896』 (상주: 국립경주박물관·상주박물관, 2014), 131.

나타나는 層판의 번호와 十里尺의 표시가 어렵기 때문에, 각 첩에 수록된 고을의 이름을 절첩의 첫 표지에 기록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靑邱圖」에서는 한양에서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고을까지 실제 거리를 해당 고을에 주기를 하였지만, 「大東輿地圖」는 도로 위에 十里마다 표시를 하였다.

「靑邱圖」의 「諸標總目」에는 12개의 기호를 표시하였지만, 「大東輿地圖」의 「地圖標」에서는 기본 14개의 기호와 세분화된 8개의 기호를 합하여 총 22개의 기호가 사용되었다. 또 「靑邱圖」는 지역 정보를 함께 수록하였지만, 「大東輿地圖」에서는 「大東地志」에 지역정보를 별도로 수록하고 지도상에서는 최소화 하였다.

필사본이 나오기 전까지 김정호는 「靑邱圖」·「東輿便攷」·「東輿圖地」를 기초로 하여 목판본 「大東輿地圖」를 제작하였지만, 세부적인 地志의 내용을 수록하지 못한 까닭에, 이후의 필사본들에서는 地理志 내용을 보완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목판본 「大東輿地圖」는 十里尺을 이용하여 제작되어 행정구역 및 항구의 이름을 전부 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필사본들에서는 목판본에서 생략된 邑·倉·坊·面·驛·院·鎭·浦 등을 새로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의 추가가 있는 반면 목판 지도에 있었던 부분이 없어진 경우도 있으나, 이를 자세히 검토하면 의도적인 삭제가 아니라 필사할 때 빠진 부분으로 전체적으로는 몇 군데에 지나지 않으며, 가장 보충이 많은 지역은 한양으로 京都를 포함하여 96개의 지명이 추가되었고, 반면 가장 수정이 적은 지역은 함경도로 변화가 전혀 없었다.

이제, 본 연구대상인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1 행정구역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의 특징 중에서 가장 크게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지리정보의 대폭 추가’라는 점이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面’의 경우에는 그 略字(口訣字)인 ‘丌’으로 표시하고 있으며,³⁰⁾ 경상도 지역의 ‘農所面’을 비롯하여 총 1,537개의 지명을 추가하고 있다. 또 洞의 경우는 강원도 지역의 ‘飛龍洞’을 비롯하여 104개의 지명이 추가되었고, 里도 전라도 지역의 ‘七峯里’를 비롯하여 148개의 지명이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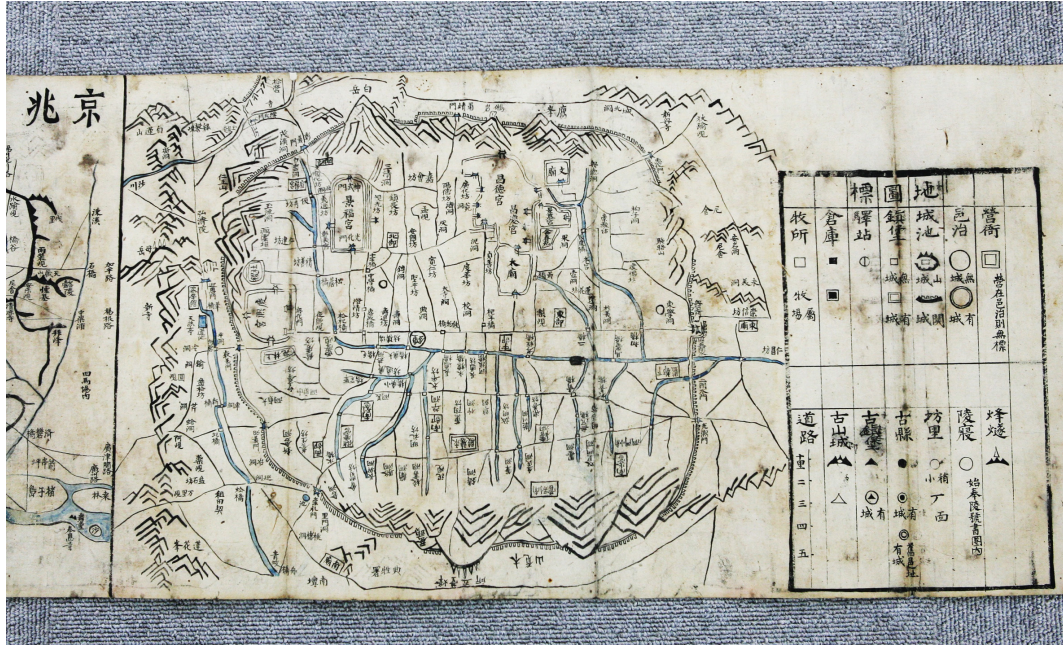
한편 邑의 경우는 전라도 지역의 古邑을 비롯하여 17개, 州의 경우는 강원도 지역의 ‘朔州’를 비롯하여 37개의 지명이 추가되었다.

그밖에 村 역시 강원도의 ‘黃基村’을 비롯하여 45개, 坊도 평안도 지역의 ‘八院坊’를 비롯하여 45개의 지명이 추가되었다.

기타 유사한 항목으로 강원도 지역 등에서 ‘缸泊所’를 비롯하여 51개의 區別 명칭이 사용된 지명이

30) <그림 5>의 ‘地圖標’에서, 그 하단의 ‘坊里’欄에 ‘丌’은 ‘面’의 標示임을 밝히고 있다.

추가되어 있고, 도로의 경우 함경도의 ‘황초령과 낭림산 부근은 도로가 끊어져 있다’고 기록하였다.



<그림 5>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 중 한성부 지역과 지도표

5.1.2 지형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에는 목판본 대동여지도에 나타나지 않은 地形을 기록한 것은 山으로, 강원도 ‘淸論山’ 등 448곳이 추가되어 있다. 그밖에 고개나 높은 언덕을 표시하는 것으로 강원도 ‘松田峙’ 등 63곳과 같은 강원도 ‘兄弟峴’ 등 114곳 등이 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경상도 ‘籠岩’ 등 岩 67곳과 강원도 ‘楊台峰’ 등 峰 60곳을 기록하였다.

한편 생활의 기본 터전이었던 江의 경우 ‘所耶江’ 등 총 49곳이 추가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川은 ‘補浦川’ 등 191곳, 그 근원과 관련된 ‘松溪’ 등 25곳과 ‘古主谷’ 등 111곳이 추가되어 있다.

과거 농업의 취수원으로 기능을 하였던 못은 경상도 ‘仙池’ 등 13곳과 작은 규모의 전라도 ‘蚊龍潭’ 등 7곳의 지명을 추가 기록하였다.

강·바다 등 육지를 제외한 기록으로는, 섬 등은 육지의 지형보다는 기록이 적고, 망라적으로 조사되지 않았지만 ‘唐島’ 등 17곳을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섬의 지명 중 ‘島’를 쓰지 않는 곳도 그림의 형태로 표시되고, 지명을 나타내지 않은 곳이 40여 곳이다.

또 항구는 강·섬과 함께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은 어업과 국방을 위한 군사기지로써의 역할을 하는 곳이 많아 경상도의 ‘古縣津’ 등 총 37곳이 추가되고, 경상도 ‘火浦’ 등 36곳, 충청도 ‘葩串’

등 13곳이 지형과 규모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5.1.3 기관 건축물 및 건조물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일반건축물로는 행정기관의 건물이나 사당·사찰·서원 등 다양하다. 그리고 국가기관에 속하는 ‘宮·營·倉·庫’에 대한 기록도 추가되어 강원도에서의 ‘守倉’ 등 11곳이 추가되었고, 전라도 등지의 行宮 등도 11곳이 있고, 군사기관으로는 경상도의 ‘旧兵營’ 등 2곳, 역참으로 경상도 ‘五里院’ 등 25곳이 나타난다.

또 공공이 사용하는 건조물인 정자·다리·전각 등도 추가하여, 정자는 강원도 ‘孤松亭’ 등 20곳, 祠宇로는 경상도 ‘關里祠’ 등 7곳과 ‘愍節四忠院’, 堂의 경우 평안도 ‘祭堂’ 등 15곳, 다리는 경상도 ‘雙橋’ 등 11곳, 성현을 모시는 殿 등의 경우 평안도 ‘箕子影殿’ 등 1곳이 추가되어 있다. 그밖에 영조 42년(1766)에는 白頭山에 祠堂을 세우기도 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한편 寺刹은, 이미 원래의 목판지도에도 많이 나타나 있지만, 필사본에서는 강원도 ‘舍郡寺’ 등 98곳을 추가하였고, 庵子로는 강원도 ‘月蘭庵’ 등 21곳을 추가하였다.

5.1.4 유족자·능묘·군사지역

이 지도에는 경상도 古城 등 각 지역에 남아있는 고성 84곳과 강원도 지역의 ‘鳳凰垠’를 비롯하여 16곳의 지명이 추가되었다. 능묘로는 ‘光海廟’ 등 8곳이 추가되어 있다. 군사지역으로는 함경도 ‘原州城坡鎮’ 등 8곳이 추가로 나타나 있다. 함경도 함흥 부근에 ‘독서당의 옛터’라는 표시도 있다.

5.1.5 인물과 관련 역사 및 사건

이 지도의 내외 부분에 시대별·사건별 인물과 사건에 대한 기록이 추가되어 있는 바, 고려시대의 ‘尹瓘이 여진을 물리치고 碑를 세운 사실’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던 인물들의 활동을 해당 지역에 추가로 기입하였다. 그 중 高敬命과 趙憲 金千鎰 등의 활동을 관련 지역에 표시하였다.

특히 국경지역에서는 羅士立 河加應伊金 李順 등이 적과 싸움을 벌인 지역을 표시하였고, 지도의 4단 6면에서는 ‘南九萬의 청으로 鎭堡를 설치한 기록’이 있다.

평안도 ‘身彌島’에는 ‘仁祖 때 명나라 장군 毛文龍이 진을 설치하였지만, 후에 袁崇煥에게 주살당한 기록’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광해군 때에 진을 설치하였다’는 다른 기록도 수록하였다.

한편 강원도 ‘강릉’에 대하여 ‘漢 때는 滄海郡 臨屯’이라 하였고, ‘조선 世祖때 과거를 보았다’는 기록을 추가하였다.

5.1.6 고구려·신라·백제 때의 지명 기록

여기서는 고구려(句) 신라(羅, 叺) 백제(百)의 각기 달랐던 “句河西良 叺阿瑟 百州 百東原京 溟洲

今名江陵” 등으로 古地名을 付記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구려 / 신라’ 또는 ‘백제 / 신라’의 비교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5.1.7 기타의 표현이나 기록

이미 앞에서 언급한 여러 영역의 기록 외에도 ‘샘과 바위의 경관이 절묘하고 기이하다’거나 ‘도로나 산이 험준함’ 등 자연의 경관을 표시하였다. 또 邑治와 驛站·倉庫 등 地圖標에 나타난 기호를 해당 지역에 추가하였고, 특정의 산물, ‘藏佛骨’과 특수한 연건 등 지역에 대한 특색이나 관련 사항을 추가로 기입하였다.

5.2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에 나타나는 추가 기록

5.2.1 추가 내용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비교하여, 연구대상의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에 추가적으로 보충하고 있는 내용인 ‘地名, 역사적 기록’ 등은 목판본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만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내용은 해당 帖 단위로 되어있으며, 帖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1.1 제1첩³¹⁾³²⁾

추가기록		
① 北極度數 標 京北 五部 共二十二		
③ 北京北極高四十度 漢陽三十七度三十九分十五抄 公州三十六度六分 大邱三十五度二十一分 全州三十五度十五分 原州三十七度六分 咸興四十度五十七分 海州三十八度十八分 平壤三十九度三十三分 北京偏東十度三十分	漢陽偏西九分 編東一度三十九分 編西九分 編東一度三分 編東一度 偏西一度二十四分 偏西一度十五分	正東岡陵月正山 正西江華摩尼山 正南興陽張機山 折○島松封山 正北原州城坡鎮
⑥ 慶源府東北七百餘里有先春嶺郎尹瓚立碑處 其碑四向有書胡人剝去其字後有人掘其根有高麗地境四字 勝覽 曰慶興府古孔州之地爲女眞所○尹瓚逐女眞設孔鎮今蘇下江濱有古基又云鏡城久爲女直所○尹瓚逐而城之後 沒于元恭愍時收復按隨錄云高麗地理止於吉州境城北無載尹瓚本傳亦未有見備考云慶源慶興鏡城皆 我朝所闢云當更考闢 ⑦ 伏胡奉龍達 長城堤 日圓寺 城峴 邊南 ⑧ 南奉 坊里○ 小稍刀 面 ⑨ 牧所 牧→ □ 古山城△ ⑩ 中學橋○ 西學峴○		

본 첩의 제3면 부분은 北京과 朝鮮의 주요 지역에 대한 南北·東西의 경위를 표시한 것으로, <한국연구원> 소장본의 내용과 형태 등 기록이 같으며, ‘동(江陵), 서(江華), 남(興陽), 북(原州)’의

31) ○안의 번호는 面次 표시임. 예컨대 ‘①’은 ‘제1첩의 第1面’을 의미함. 이하 제22첩까지 모두 동일함.

32) 이하 필사본 『대동여지도』 22첩 각 첩의 ‘추가기록’ 표에 표기되는 記號(△: 古山城. ■: 倉庫. ①: 驛站. ○: 無城. 등)는 김정호의 목판본 ‘地圖標’에 나오는 기호와 동일한 標示임.

표기도 일치한다.

또 제6면 부분의 역사적 기록은 윤관에 대한 기록인데, ‘경원부 북동쪽 7백리에 윤관의 비가 있었으나 오랑캐가 그 글자를 파내고, 후에 그 비의 바닥을 파내보니 ‘高麗地境’의 4자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 밖에 윤관이 여진을 물리친 후 공민왕 때 다시 수복을 하였고, 『隨錄』³³⁾에는 ‘고구려 백제 등의 지리서에서 길주·경성 이북’이라 하였고, 윤관 본전에도 없고 『備考』³⁴⁾에는 ‘경원 경충 경성 모두 우리 조정의 소관임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5.2.1.2 제2첩

추가기록
① 共二十二 ② 翼祖避禍陶穴 尙在 ③ 新阿山 三洞山△海直 新乾原 造山 ④ 三洛江 古乾原 龍岩 茄坡岑 ⑤ 雍一 雍二 八下 上里 下里 甫下一 ⑥ 城古有宋 南奉 英宗六年宋直明奏雲頭山城址實爲天作宜築城 移別害僉使居之鍾城等邑軍器使藏于此 上可之 ⑦ 梁永 ⑧ 張漢相在北關時帶率壯武韓廷弼許斫彼邊材木隨有穆差定界事 康熙壬辰界時以此 称分界 江上流 ⑨ 花川 凸 ⑩ 本成鏡道甲山府之閭延村太祖十六年以距郡遼遠割小頭以西爲閭延郡屬本道世祖初年以雜胡侵掠廢 移民于龍城府寶鑑端宗元年梁誠火以南軍往戍之弊請徹閭延茂昌虞芮三邑戍嚙有大江封彌自如以慈城爲界使休民端 宗命徹三邑 於用怪洞

본 첩 제2면에 ‘翼祖³⁵⁾가 화를 피하여 거처하던 굴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제6면에는 英宗(英祖) 6년(1730) ‘송진명이 운두산성 터에 城을 쌓아서 종성 등 위험한 곳의 군사와 거주민들을 옮기게 하자는 주청을 왕이 허락하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제8면에는 ‘장한상이 북쪽 국경에 있을 때 무장인 한정필에게 국경의 나무를 베게 한 후 목극등과 함께 국경의 경계를 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제15면에 있는 기록은 ‘함경도 갑산부의 여연촌이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까닭에 태조 16년³⁶⁾에 본도로 소속시켰고, 세조 초년(1455)에 오랑캐가 침입하여 백성들을 용성부로 옮겼고, 단종 원년(1452) 양성지가 남쪽에 주둔하는 군사들이 자주 이동하는 폐단을 없애자고 주청하고, ‘여연·무창·우예 3읍을 철폐하고 자성을 경계로 하여 백성들을 편안케 하자’는 의견에 단종이 3읍을 철폐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5.2.1.3 제3첩

추가기록
① 共二十二 ② 形如覆釜 惡石涯峨 ③ 東三 ④ 下茂 契湯峯○ ⑤ 三山杜 ⑦ 柳洞 緩項峯 ⑧ ⑨ 三池仇非 古隱仇非 龍起△ 仲天峯 小農山 ⑩ 本閭延府上無路堡 世宗十八年○方戶二十二年割閭延附出哈孫梁原州甫山等地 置縣二十四年○爲郡 世祖初年廢 北水洞 旧茄乙波 魚面抱守 四松峯 ⑫ 自作峯 ⑬ 趙明干 廢堡 田尙祿接戰洞 會陽洞 羅士立接戰洞 胡芮洞 河加應伊金接戰洞 張景丹洞 李○接戰洞 波湯洞 三岐峴

33) 유형원의 「반계수록」으로 추정된다.

34) 「동국문헌비고」 내지 「증보문헌비고」로 추정된다.

35) 翼祖는 朝鮮의 追尊王으로, 太祖 李成桂의 曾祖父이다.

36) 太祖의 재위기간이 7년으로, 이 기록은 誤記로 추정된다.

본 첩 제10면의 기록에는 ‘여연부에서 堡로 연결하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세종 18년(1436)에 1만호를 두었으며, 22년(1440)에 여연부를 분리하여 原州, 甫山 등지에 현을 두었으며, 24년(1442)에 군으로 올렸으나 세조 초년(1455)에 폐지되었다’라고 기록하였다.

5.2.1.4 제4첩

추가기록
① 共二十二 ② 龍城 朱村 ③ 中峯△ 五埕峯 巨門峯 永■ 佛峯△ 清德△ ④ 起雲峯 ⑥ 開野可畊作南九萬請設鎮堡 ⑦ 英宗四十二年以白頭山爲岳建閣於此望祀■ 何方金德 ⑧ 財田店 吏方峯 館東峯 ⑩ 天柱山 ⑫ 曲河 ⑬ ■ ⑭ 西江 東南 多甲坪

본 첩의 제6면에는 ‘황무지를 개척하고 남주만이 鎭·堡를 설치하였다는 의견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고, 제7면에는 ‘영조 42년(1766) 백두산에 제사를 지내는 각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5.2.1.5 제5첩

추가기록
① 共二十二 ④ 麻田洞 白二 白三 右 ⑤ 水上 ⑥ ■ ⑦ 金昌 ⑧ 元川杜終 ⑩ 歧川杜終 ⑫ 南山 ⑬ 北 ⑭ ■ 北 渭 南 榆倉 ⑮ 幹眉府 安土峯 東部 ⑯ 阿耳 利把 童巾[] 幢

본 첩의 제14면에는 ‘榆倉面’을 비롯한 面이 9곳 추가되었다.

5.2.1.6 제6첩

추가기록
① 共二十二 ② 缸倉■ 大同寺 松德寺 西■ 下右津 松 周一百 四十步 ③ 有漁戶 岩險人亦不通 雞屬多養雞 險不可居 門岩 峯東□ 峯東○ 西初 ④ 高滿 利士 ⑤ 時叱間 層岩 產川糧父鯢魚 利德峯 多宝 中平 甫青 ⑥ 梁川 居山 甌峯 觀音寺 毛德 派各 通坡 ⑦ 元川 羅可洞 ⑧ 峯 棋隣 東川 古川洞 龜兒洞 ⑩ 郡三百里 道路不通 廣城峯 ⑪ 喻院 ⑫ 站 柔院 終 ⑬ 長坡峯 棘城洞 喜安洞 ⑭ 栢 弓 車峴 古中 南 江同 幢 終 葛峽洞隅 臥龍洞 ⑮ 林■ 雲農怪 太上 九非 太平 南川 官奴洞 三峴 ⑯ 川峴 秋哭仇非 西下 ⑰ 甲岩回

본 첩의 제3면에는 지형과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고 통행이 없는 곳’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 밖에 각 面의 여러 곳 명칭이 추가되어 있다.

5.2.1.7 제7첩

추가기록
① 共二十二 ② 店串△ 中平 仁厚 ③ 車津 大俗厚 黃石 加串 龍京 尹所德 茅洞 甫青杜 ④ 相田峯 吳補寺 隱寂寺 讀書田基 歧谷 竹■ 鷹峯 社 東院平 連浦 ⑤ 上朝陽 川西 州西 小院 金水山 新■ 汝仁川 ⑥ 長溪川 樂倉 ⑦ ■ 門 新倉 黑淵江 廣城川 ⑧ 眞 南 安心寺 東觀寺 北 ⑨ 古峴 長字站 西羽 香山川 梅花峯 西 ⑩ 古延州 東來院 古城 魚川 新楓山 衙○洞 麻田灘 華峴 南 三洞里 城洞川 陽和山 ⑪ 東倉 北 月隱乃峯 下端 大井 ⑫ 朱洞峯 松峴 赤峴 華水峴 驛池 龍藏庵 北 小峴 東山 西山 上端 ⑬ 天摩 官洞 鎮■ 昌洲 三峯山 上 白呂 昆池峴 北 九字 寧朔 ⑭ ○山 光北 古城 官史 水鎮 長松 津里 ⑮ 漁隱洲

본 첩의 제4면에 ‘독서당의 옛터’라는 역사기록이 적혀있고, 그 밖에 각 면의 여러 곳 명칭이 추가 되어있다.

5.2.1.8 제8첩

추가기록
① 共二十二 ② ①〇〇 府內 廣浦 堂山 細■ 白土峯 細柳 正林寺 文山社 金伊江 道安寺 德興 里仁 七里 天皇山 古寧仁 嘯山 岐山 億 璫源殿△ 城隍山 福興 靈治庵 ③ 馬蹄峯 石洞峯 水洞 ④ 丑洞峯 太乙■ 尾老乙峯 ⑤ 德林里 南 兩加音峯 西 南 三灘 迫江 公尾匠 牛峯 邑內 元寒里 梅峯 ⑥ 新松■ 百峯 南山 內東 鷹峯 蛭舍 順川地 百峯 豆乙峴 鳳凰庵 仙庵 郡內 古里 直洞 外東 ⑦ 巾下里 深靜寺 吳垵寺 成五 馬防山 鳳岫 梧里 外西 新■ 雲冬 內南 玉山 青龍寺 ⑧ 盜直峯 東 撫山坊 八院坊 長林 青龍山 延山 培項 修隅站 東州內 氏峴 獨山 鳳麟山 土城 天○山 茂州峴 南 東 寸公浦 大所筒 葛花 青山 龍頭 挾水治 月九峰 ⑨ 西 新峴 大峴 南 小峴 西北 高峴 東州 新安 河耳 東部 馬山 德安 古邑 大明洞 屯田 西院 葛之 屯山■ 唐吾站 臨海山 南 東 ⑩ 北 江 文田 通京峰 ○里 南 多近峴 ○峴 香爐峯 銳嶠 南 青山○ 新府 東 大陸山 古府 君山 楡林 台山 長峯 眞鞭 千里鞭 晦岩 能 仁祖甲子明將毛文龍設鎮于此詐虐備至經略袁崇煥數罪斬之 ⑪ 炊喜山 善光 鎮■ 東下 孟山 馬城山 古邑 餘門 板橋 古城 清江□ 待變寺 自作峴 卯串 外上 內上 內下 外下 鳳凰 光海朝毛文龍設鎮于此島 地境峴 ⑫ 北下 境上浦 石峴 紅橋 河爲浦 弥串■ 龍川 冬郎津 楸下 西 耳細 頭應册 次 洋 露積 羔 下峯 馬鞍 馬腰

본 첩의 2면에 ‘조선왕들의 계보나 종친 등에 관한 기록을 모신 선원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제10면에는 ‘인조 갑자(1624)에 명나라 장수 모문룡이 鎭을 이곳에 설치하였으나, 1629년 6월 榑島를 지키던 모문룡이 經略인 원숭환에게 주살당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당시 조선은 모문룡에게 군수물자를 제공하였다.

한편 제11면에는 ‘광해조에 모문룡이 섬에 鎭을 설치하였다’고 하였으나, 역사기록에서는 인조 때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같은 지도에서 서로 다른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5.2.1.9 제9첩

추가기록
① 共二十二 ② 申 薪山 岐山 〔都〕之△ 龍成 庵 草閑 粘石寺 赤田社 ③ 士峯 大同寺 牛田峯 豆流山 雲林 我好非峯 ⑤ 農山 楡■ 楡田 双溪岩 樟峯 大邱 檜■ 銀店 崇仁 黑所 ⑥ 必密 三歧 朔田 岩浦 柴田 西部 泉谷 藍田坊 深壑 車峴 文憲 柵田 溫水 九化 ○水 ⑦ 仇上 柳洞 仙院 ○院 助吾 風穴 召池 銀店 東林山 南山 ○厚 尾石峯 所伊彥 活洞 了浦 魚山 望溪寺 城東坊 梨花山 清水川 五雞 檢洞 九折奉 烏山 牛馬城 豐田 龍谷 北三 北兄弟 新院 林原 牧丹 公田 私峯 ○島 正方 釜山 ⑧ 西施 箕壬垵 ⑧ 青龍寺 窟 東山 牛方山 南■ 三里 次里 自作 臥龍寺 具溪 龍隅山 楸島 全堂川 順和 冬 東峴 居里 南葵山 金呂大 抄道 西葵山 屈靈峴 居里 通海 蓮下 海栗 中部 順安 西部 德池 上界 青池 漁坊 順安 白鷺 下防 新里 車峯 可串 上防 項頭 ⑨ 新里 車峯 可串 上防

본 첩의 제2면에 ‘龍成面’을 비롯한 면이 총 73곳 추가되었고, 마지막 배접된 지도 면에 病的 치료에 관련된 내용의 한글간찰과 한문간찰의 문서가 노출되어 있다.

5.2.1.10 제10첩

추가기록
① 共二十二 ② 山南 ^外 西峇 末九里 三進山 養院 ^丁 鉢里峯 順達 ^丁 踏日 ^丁 十二峴川 城古坵 清論山 ③ 外峇 ^丁 古城 龍湫 河峰 上道 ^丁 初北 ^丁 木谷里 七松亭 ④ 世清 ^丁 花山 新里 ^丁 方下山 ^丁 鞍帖 古軍 營其 魏翼 ^丁 ○峴 永豐 ^丁 王老所里 ⑤ 乾者古里 板布星 柳傍里 通洞 吞希易里 ⑥ 伊峇終 浦內里 山外 ^丁 伊峇 ^丁 東村 ^丁 毛所里 箕子影殿 月峴 北 ^丁 ⑦ 花村 ^丁 件隱峇 新谷 ^丁 正乙 角屹峯 水口 ^丁 小內谷 ^丁 道洞 ^丁 汝次峯 龍溪△ 西部 松洞 ^丁 ⑧ 延岩 ^丁 五鳳山 陵峴 炅苗 ^丁 赤山 并雲峇 銀店 方依坪 ^丁 克峇 紅岩 ^丁 下道 ^丁 培化 ^丁 都站 ^丁 安峴 培山峴 楓土峴 銀石寺 上道 ^丁 禾山 新橋 ^丁 杜耳山 推吾伊乙 ^丁 ⑨ 栗里 ^丁 妙明寺 古生 東頭 ^丁 東明王墓 陽 ^丁 山△ 仁洛 ^丁 綾羅島 地梁 ^丁 上道 ^丁 大同江 ^丁 敬天 ^丁 牛岩坊 陵山 南川 女比洞■ 南癸 ^丁 沙莪坊 大已峴 中外城 芥芦詞 鍊光亭 永洛橋 唐林 ^丁 下道 ^丁 木谷山東開 普里 ^丁 州北 ^丁 柳洞 分田坊 石串 ^丁 長廣 扣橋 鷹山 閑山 高井 ^丁 三田 分田坊 古○和 ^丁 蛤池 ^丁 東開 ^丁 馬向津 高井 ^丁 赤坊 固峯 鷹峯 方景坵 貴 昆陽 ^丁 大去火 ^丁 永陰 ^丁 ■ 松林 ^丁 慕聖 ^丁 大予里 班石 ^丁 耳老 水盡 ^丁 石浦 草地 ^丁 浮石 ^丁 ⑩ 苐次 ^丁 深谷寺 九○池 華表山 東部 普元 ^丁 津■ 沙津 ^丁 新■ 新井 ^丁 芝山峇 安谷坊 小串坊 古縣 站串 ^丁 閑龍 ^丁 元土里山 城峴 增○里 水川 ^丁 西府 杏○坊 隱龍山 吾山 ^丁 三在 ^丁 舉岩 ^丁 停蹕峯 梧井 ^丁 薪洞院 筒峴 北 ^丁 加馬山 小井 ^丁 卯山 ^丁 山南 ^丁 大德坊 縣內 ^丁 △五串 反火 ^丁 細串 ^丁 金川谷 ^丁 加德 堂帖 ^丁 於東 ^丁 吾隱洞 ^丁 元○ ^丁 大代 ^丁 大津 三道坵 道里坊 ⑪ 于衣 ^丁 草所 ^丁 甘朴 ^丁 金堂峴 北 ^丁 防缸 乃火 ^丁 貴林 ^丁

본 첩의 제2면에 ‘山南面’을 비롯한 面이 총 89곳 추가되었다.

5.2.1.11 제11첩

추가기록
① 共二十二 ② 懸鍾庵 ■外 鳴汶 梧峴 ^丁 洛峴 ^丁 臨道 ^丁 三北 ^丁 西 ^丁 七松 南 ^丁 水東 國東寺 三北 ^丁 封山 插峙 龍川里 ③ 溫井 面希村 長北 ^丁 豐美 ^丁 岩洞 弓山 ④ 人水地 府內 ^丁 住南 ^丁 東 ^丁 封山 南大川 南 ^丁 ⑤ 眞木洞 麻田洞 二東 ^丁 踏崎 東沙洞 所伊山 初北 ^丁 大浦 遠北 ^丁 忠烈祠 成洞水 城東水 南 ^丁 初西 ^丁 北 ^丁 古洞里 弓王古都 於隱 ^丁 ⑥ 九儉 ^丁 赤岩里 畝長 ^丁 流川里 旺唐村 西 ^丁 乃文 ^丁 加所洞 封山 板橋 ^丁 豆尾所里 草介 ^丁 古次里 登谷 ^丁 馬揚 ^丁 東 ^丁 立石山 山內 ^丁 尾方 ^丁 上水 ^丁 退灘里 ⑦ 下邑 ^丁 廷下 ^丁 愁離洞 山帖里 面 ^丁 古城 水流里 花踰峇 加木峴 德仇灘 小北浦 方東江 利木五里 ⑧ 道下 ^丁 萊村 ^丁 兩木寺 沙瑟峙 西村 ^丁 沙伊曲 ^丁 赤岩 ^丁 胃音川 芝破谷 ^丁 東里 ^丁 南川 西里 ^丁 余背耳 ^丁 知谷 ^丁 多院 ^丁 喙木山 芦淵 栗灘 双溪庵 甘泉 好賢 ^丁 合灘 ^丁 白蘋 ^丁 吾助川 ^丁 件隱峙 伊峴 高石峇 東部 ^丁 田莫 ^丁 五助川 ^丁 ⑨ 舉鳥洞 龍祀愁 ^丁 矢城■ 文丘 ^丁 社■ 峇 木甘 ^丁 坪里 ^丁 德岩灘 上月 ^丁 山水 ^丁 胎峰 甘導 ^丁 武陵 ^丁 墨川 ^丁 林之邱坊 御史 ^丁 驛代山 ^丁 ⑩ 德峴 入石里 鳳凰山 文井坊 月雲屯 西湖坊 忠烈祀 城○ ^丁 銀注乙只 ^丁 箭灘屯 歧灘 葛山屯 唱金山 達城坊 三支江 栗串坊 官農庄 南勿里坪 館加里 上栗坊 柳○ ^丁 [立石]灘 長峇坊 屹紅坊 門一坊 大元坊 聲月 ^丁 右里坊 加串坊 左里坊 加山坊 清水坊 加介 ^丁 佛赤山 花山 大井 ^丁 連寺 ^丁 地境 葛山坊 ⑪ 方竹 ^丁 貝葉寺 用珍坊 赤串坊 隱神庵 東■ 左沙川 鳳岡△ 弓村坊 九伊 ^丁 一道坊 妙覺寺 栗枝 ^丁 三八伊 ^丁 蘭灘 方竹 ^丁 魚川 ^丁 西 ^丁 黑山 高井寺 馬村 ^丁 巡 所山 任■ 溫井 △ 鳥峇 輪洞川 東■ ⑫ 泉洞 ^丁 上里 ^丁 ⑬ 四海神坵 栗里 ^丁 下里 ^丁 舍人峇 尊澤 ^丁 游山 ^丁 千佛山 新峴 薪谷 ^丁 南昌 ^丁 海安 ^丁 吾義 ⑭ 祭堂 西岩

본 첩의 제5면에 ‘궁예가 철원지역을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다(弓王古都)’는 기록이 있고, ‘臨道面’을 포함한 面이 총 89곳 추가되었다.

5.2.1.12 제12첩

추가기록
① 今泉 北■ 所川 降仙[丁] 道門 彌時城嶺 所坡嶺 土城 終 古城 侮上 回百潭川 深福寺 兄弟峴 北 松蘿洞 黃基村 加田村 封山 ② 長柱洞 深廣里 瑞和[丁] 九尾村 封山 良洞 上東 下東 句猪足, 羅詠今名 路井里 兜[?]川 杏峴 鶴峴 松峴 南 韶楊清, 羅楊麓, 句要隱印次 沙峙 西 城洞 清涼寺 加里山 者尺 五音寺里 芳川 梨峴 末巨里 隱居里 東山外 ③ 句牲川 南 居札里 古貊國 韋落山 北中 三檜洞 羅牛首州, 韶春州 谷山 東內 昭日 鳳凰山 南府內 朔州 光海州 鳳凰台 大同 百日子日 松田峙 箭防山 五峯山 沙峴 南內 武陵峽 下西 松岩里 方洞川 母津[△] 三岳 安保 芳谷南杜■ ④ 多木峙 藪密里 內■ 谷雲 西下 終 楊台峰 北 銀溪 南 西 相日里 西邊島峙 青松 龍泉寺 赤五深 北 終 西五十里 姜氏峰 大斧山 歹宗 坊石山 峙串津 孤松亭 松南 中里 果仁 官仁 新須里 北 越境里 摩訶川 縣內 句攻木達, 羅功成, 韶漳州 金截山 東 子隅山 兩音山 住之 助良 風穴川 句深骨, 羅洞陰, 韶永興 南 明楚峰 梁父[○] 金玉洞 青鶴洞 白路島州 下里 玉屏 西南 山內[丁] 六松 炭場街 龍淵 外北 枝尾里 東村 清涼 韶拘州, 句馬忽, 羅堅城 銅店 西 長林 鑄金山 音西井 仍色峴 嶺峴 ⑤ 外西 柑松亭 南 青松 祝石岑 古州內 與成山 橫山 漕今山 僧零山 廣目 東 城山 東 西 溪老里 白蓮庵 江東 江北 古臨江縣 白登山 城隍山 西 北 長東 東 [淺]■ 句今名, 韶臨湍 西 馬尾山 古七里 河北 朽斤津 零斤 句七里城, 羅二里城 南 陳番

본 첩의 특징적인 내용 중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의 옛 지명의 명칭을 부기한 기록이 많아서, ‘句猪足, 羅詠今名 / 韶楊清, 羅楊麓, 句要隱印次 / 羅牛首州, 韶春州 / 句攻木達, 羅功成, 韶漳州 / 句深骨, 羅洞陰, 韶永興 / 韶拘州, 句馬忽, 羅堅城 / 句七里城, 羅二里城’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옛 맥국의 자리’라는 ‘古貊國’의 기록이 있다.

5.2.1.13 제13첩

추가기록
① 江陵 漢滄海郡 臨屯 句河西良, 羅阿瑟羅州, 韶東原京 溟州 今名江陵 羽溪[丁] 羽溪 終 庠洋 梧津 北二里 月正山 北一里 古城 穢口王 雲錦樓 世祖駐蹕 下東 愛日里 嘉南[丁] 泉石絕奇 德方[丁] 南一里 南二里 極高險 木溪岑 兵耕[丁] 兵井 終 可資谷 承遠台 道岩 芦洞里 沙火 漢時秤單 單大岑 彌音山 泉石絕勝 世祖內成駐蹕設科 取士 城佛骨 漢水之源 鎭峴 觀音山 ② 內面二里 北 雲交 ③ 內 終 南 甬木乃峙 忝岐山 瑞石[丁] 乃村[丁] 末村[丁] 甲川[丁] ④ 蟄龍山 七峯里 青龍[丁] 句代力川, 羅綠驍 國士峴 北方 三流羽 楡峙 津止山 水龍寺[川] 西土川 句橫川, 羅韓川 南外山里 上北 北 句峙峴 下東 ⑤ 清平山 句斤平, 羅嘉平 方洞 上道 一尾谷 淋句谷 西 貢上示川 南 嶺力炭高 木四萊 甘勿岳 北 潤筆庵 下西 上元庵 龍門山 活戌洞 古邑[●] 舍郡寺 西始 西中 西終 青帝山 補浦川 南始 南中 南終 ⑥ 棒代 接洞 下道 乾川 成廟 光海廟 直宮 金村 草阜 突馬 草月 五浦 門懸山 忠烈祠 石城山 茂堂 西過 守倉 瑞鳳寺 水直 險川 龍岩 龍川 細村 百洛古郡 羅漢州, 韶今名 西部 檜岩 別非谷 佛岩山 柴北谷 蕪山廟 海等 長興 高岑山 北漢 古馬城 徽慶 楊州 漢陽 洛北漢 沙河坪 京都 摠戎行宮 深鉢坪 延曙 白蓮山 楊花 城山 花田里 句南平壤, 羅漢城, 韶南京 木覓山 漢江 南廟 龍山 栗島 蘓島 產州 良才川 沙平里 義答 句栗木, 羅栗津, 韶今名 東 大旺 五倫 穿呼川 行宮 險川 水直 秋岑[驛] 瑞鳳寺 守倉 彌勒堂 北教 太乙山 兩 松洞 月谷 北方 桑林 上北 愍節四忠院 下北 東 北 上 放寫 鐵串津 將軍所 西 句仍伐奴, 羅穀讓, 韶衿州 荊石 星谷 句獐項, 羅獐口, 韶今名 郡內 仍火 ⑦ 草山 大月 馬游 一尾里 品宮 捉魚岩 道里峴 黃等 新峴[丁] 田邁 南村 蛟川 鳥洞 蘇末山 多所 遠文令 朱岸山 加背谷 水吞 三井 ⑧ 飛加[島] 衣峴[島] 三島[島] ⑩ 沙乃嶋

본 첩의 특징적인 내용 중에는 앞의 제12첩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신라, 백제의 옛 명칭으로 ‘江陵 漢滄海郡 臨屯 句河西良, 羅阿瑟羅州, 韶東原京 溟州 今名江陵 / 句南平壤, 羅漢城, 韶南京 / 句栗木, 羅栗津, 韶今名 / 句仍伐奴, 羅穀讓, 韶衿州 / 句獐項, 羅獐口, 韶今名 / 句南平壤, 羅漢城, 韶南京 / 句代力川, 羅綠驍 / 句橫川, 羅韓川’과 같은 기록이 있다. 또 ‘화부산에서 세조가 말을 타고 와서 머물렀다’는 기록과, ‘세조가 병술년에 말을 타고와 머물면서 과거를 시행한 곳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목계령’에 대해서는 ‘극히 높고 험준하다’고 하였으며, ‘상원암에 부처님의 뼈를 모시고 있다’는 기록도 있다. ‘愍節祠忠院’이라 하여 ‘충의와 절의를 지킨 신하(死六臣) 들을 모신 곳’이라는 기록이 있다.

5.2.1.14 제14첩

추가기록
① 缸泊所 石公坨 宿乙非 遠北 富川 近北 北下 北上 近德 芦洞 遠德 尾老里 見朴谷 ② 安東地 下長者 南 上東 封山 中東 春陽 道淵 臥丹 白屏山 下東 上里 東 封山 飛龍洞 ③ 味吞 栗峴 峯栗山 川上 封山 北 西 西 龍湫 椒井 安東地 梧鹿 水恩 三浮石 大谷山 東元 方爾山 白也山 縣內 龍火 城洞山 古城 加也 松坡 錦江亭 彰蔀洞 南 ④ 古縣津 遠兵谷 岩甘山 水回 加里城 令勿山 蚊龍潭 板梯 樟峴 申原 正之安 楮田潤 九勒 朴浮山 尼岩山 近右 ⑤ 令勿山 天神寺 富論 利安 周寺 老隱 古城 栗枝 珍乃 南 東 ⑥ 沙北 戶北 長水 長川 屯之山 屯之山 東村 西 西二 西三 二 加士 南 下栗 上栗 法王 栢答 波多 母山 加之洞 ⑧ 水戶 双水 水山 周迪 枚門峴 西加梘 禾方 東 內孟 巨門 松山 一道 多龍 草山 縣內 新北 弓靑 ⑨ 北一道 土里 勿伊 北二道 万巨山

본 첩에서 제12, 13첩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신라, 백제의 옛 지명으로 ‘句栗木, 羅栗津, 韶令名 / 句斤平, 羅嘉平 / 羅漢州, 韶令名’ 등의 기록이 수록되어있다. 그 밖에 각 지역 중 面의 명칭을 상세히 기입하였다.

5.2.1.15 제15첩

추가기록
① 共二十二 ③ 下縣內 上縣內 近北 南 箭竹 加乙 龍頭山 米浦山 ④ 畝谷 西 西 封山 廣庇院 初度 古主谷 龍化寺 七星峰 北二度 大川 南 西 立岩 北倉 東 上里 下里 南 宗山 明月山 ⑤ 西二度 西 安山 楸山 東上 臨北 五峯山 馬峯 九水峴 臨東 四潰 影堂 寧芝山 宣東 清溪 東下 月蘭庵 水閣山 東先 東後 臨西 西後 ⑥ 北先 西先 北後 鏡光 青城 楓峴 豐東 伊山 豐北 三峯 於火 平恩 隱山 豐南 赤布 辰穴 繩刀 豐西 中下 可興 好文 棚先 豆田 北山 臥龍 ⑦ 双岳寺 下里 鄉桐 大同山 南上 上里 鳴鳳山 胎峯 省火 鷄卵峙 終九十里 冬老 花社 東 孤山 山南 外北 水村里 山北 戶南 北 西建 自北 龍山 古縣 戶西 南池 南 外興庵 內北 神勒山之峴 龍淵 姑谷城 覓伐山 下西 官方山 草谷 身南 潮泉加東 上西 化東 ⑧ 九鳳山 勉義 清華山 楡峯 東上 東中 葩串 双溪寺 文岩 松 竹坡山 東下 頻伽山 章岩 獅子庵 遁明寺 龍川 成佛山 錦山 花岩 南下山 大龍寺 思角 北中 北下 化上 南川 一道 南上 蜜岩山 南中 東 松林寺 內北 西尼 蛙山 東衣 三開 三汗 靈音峙 月外里 ⑨ 品峙 近西 邑內 近南 草川 東 遠西 君子峙 大鳥谷 不 北江內二 山外二 山外一 草坪 山開 德文 牛潭北江外一 北江內一 南一 所奮 芳洞 文上 甌山 荊南津 一道 月出 北過 杏亭 北江外二 歡喜山 穢岩 義湖 北 二遠東 一遠東 松溪 西江內二 南次二 新淵 江亭 九則 炭洞 西 ⑩ 吉祥 西江外二 修身 南 北二 東 大峙 西 道里峙 新道里 三岐 益貴谷 郡南 南 南 大西 沙哭山 北三 僅郎 孔岩 東部 都西 正安 南部 遠西 廣峴 掛方山 西達山 白雲山 南下 廣德山 南上 新上 寺谷 牛井 城頭 大朴山 舍人峰 大坪 佳文川 柯峴 大西 小西 鶴城山 汚浮川 合北 合南 居等 大鳥上日 陽村 內北 外北 道用 縣內 大德山 雉寺 大甘介 坪里 金籠山 金洞 外也 古縣興 於方 龍淵 洪天 松枝谷 ⑪ 興世 哭朴所 州北 州南 西谷 洪安松 西谷 金井 蕃川 化成 北 東 南 桃李 高南 已谷 加次山 斗尺 躬耕 鳥史 廣川 睦忠 王溪大川 馬峯 燈繁山 斗峙 銅岩 西 西 臥龍川 高北 高等 栗串 大寺 吾山 仁政 助金津 高南 上西 缸所 下西 高院 大也 双鰲 海門 長尺 金神 栗 抽 老 芦占 馬山 東二道 缸所 ⑫ 海 東一道 南 近西 遠一道 遠二道 楓川 泰安 中場 衣店 長古 六 鞍 水營 黑 黃 三島 青 兔 孤 呂 煥

본 첩에서도 다른 첩과 마찬가지로 ‘潮泉加東面’ 등 面에 대한 기록 207번 추가되었다.

5.2.1.16 제16첩

본 첩의 제5면에는 ‘의구충’과 ‘의우충’에 대한 기록이 있다.³⁷⁾ 한편, 제8면에는 역사기록으로 ‘壬辰霽峰殉節’이라는 기록과 ‘趙憲戰亡有 / 七百義士塚’의 기록이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임진왜란에서 순국한 高敬命(霽峰)에 대한 趙憲의 기록이다.³⁸⁾ ‘칠백의사충’은 조평이 濟原察訪에 재임 중에 금산 군수 金聲發과 함께 협력하여 임진왜란 때 순국한 인물들의 七百義士塚를 수리하여 다섯 단으로 만들고 조현 고경명을 봉향한 전말과 의사들의 행적을 기록한 곳이다. 또 제9면에는 ‘關里祠’³⁹⁾가 있다. 제10면에도 ‘義烈祠’와 ‘彰烈祠’가 있다.⁴⁰⁾

추가기록
① 共二十二 ② 鉢山 南丁 栗谷里 東丁 龍岩 少螺岩 南浦 淨水寺 定功庵 北丁 北川 西丁 ③ 外南丁 宝鏡寺 省法峴 府內丁 屏岩 柳峴 竹長丁 北安丁 巢鶴岩 府東丁 △縣內丁 縣南丁 梨田坪 縣南丁 縣東丁 鼎脚寺 知谷丁 鳴山丁 ④ 府西丁 玉山△丁 外舍谷丁 多古木 大峴 風穴 一直 黃川 內舍谷丁 石谷丁 雉山丁 西川 丹村丁 龜山丁 外也丁 南部丁 佳音丁 巴立丁 中立丁 友甫丁 缶東丁 縣南丁 余音 石亭子 缶南丁 繩木△山 尼輿里 乃火丁 藏坵△ 缶西丁 石亭子 屈川 ⑤ 石田丁 內北丁 身東丁 所及丁 △ 缸橋 南丁 中里丁 留鳳山 慈悲峴 古岩峴 縣東丁 定北丁 甕川 外西△丁 內西丁 花谷丁 西里丁 夢坵丁 北熊丁 東丁 文川 深川店 丹北丁 丹東丁 丹水△ 道聞丁 義拘塚 新谷丁 山內丁 山外丁 義牛塚 長谷丁 石田津 文良丁 ■古丹窩 東內丁 甘川 大潭 綱潭丁 下仇末丁 北三丁 縣■△ ⑥ 次菴寺 注兒丁 芦於○ 竹峴 無洞丁 西來丁 東丁 平城丁 屈土峴 內南丁 青東丁 五里院 狝松亭 水寺 九所丁 位良丁 天上丁 北丁 城隍 赤田丁 牙川 雲暗山 農所丁 高方山 末峴丁 西谷峴 草田丁 唐所丁 今勿丁 外南丁 玉洞△ 黃金所丁 巴伊丁 乾川寺 半谷丁 直指寺 高加大丁 助馬丁 果外谷丁 代項丁 北丁 ⑦ 天菴丁 寒泉 吾谷丁 松溪△ 梅下丁 斗伐丁 月利丁 東丁 牟西丁 石川 西丁 山羊岩 金溪里 東丁 龍化 都麼峙 身東丁 北丁 西丁 安東丁 表忠祠 北一丁 北二丁 △ 大岩南丁 葛峙 三峯 赤川 柳野丁 ⑧ 安南丁 長沙里 東丁 郡北丁 郡西丁 郡南丁 富北丁 郡北丁 險陌川 東一丁 錦川 富西丁 西丁 富南丁 龍湫 馬山 北一丁 太古亭 東丁 內南丁 外南丁 山內丁 耶田里 東二丁 東一丁 壬辰霽峰殉節 南一丁 星谷△ 西二丁 趙憲戰亡有七百義士塚 棋嘶川 宝石寺 柏子峰 半日峰 柳等浦丁 道山△ 尺花丁 縣愁洞 川內丁 北丁 勿洞 西丁 ○清淵 西一丁 分水院 加帖 ⑨ 東丁 北丁 西丁 道遙亭 伐谷峙 第村丁 林亭 東丁 南丁 豆麻川 倉汙丁 白石丁 忠谷△ 赤寺谷丁 甲寺 辰頭丁 國師峰 上道丁 關里祠 下道丁 松山丁 般若山 大鳥谷丁 渴馬洞丁 竹本丁 合光丁 香峯 川東丁 雲山 雲西丁 紆州 炭峴 木洞丁 長久丁 沙峴 月午丁 豆寺丁 泉洞丁 ○○寺 九子谷丁 篤子川 川西丁 東過峙 廣石 論山橋 魚日城 連山 城本丁 古布丁 道谷丁 松林丁 ○雲丁 西二丁 紫雲山 木谷丁 素沙丁 得尹丁 院北丁 定北丁 花山丁 金浦丁 彩雲山 北丁 西四丁 西三丁 五金山 帝石山 花山 ⑩ 滄江△ 蒙道丁 義烈祠 北丁 江 仁義丁 世道丁 南山丁 白岩丁 聖林寺 草洞丁 龍頭浦 北丁 東丁 南丁 九文川丁 五峯山 栗村丁 豆村丁 內洞 九根山 北調只丁 東過丁 豆毛谷丁 △■ 東三丁 東一丁 南二丁 黃登山 道成寺丁 公洞丁 七星山 大同丁 北三丁 北一丁 西一丁 北二丁

- 37) 의구충은 경북의 선산(구미시 해평면 낙산동)지역에 의로운 개의 무덤으로, 주인이 이웃마을에서 술에 취해 돌아오다가 말에서 떨어져 잠이 들었을 때, 불이 난 것을 개가 주인을 위해 물을 묻혀 구한 설화와 관련된 곳이다. 또 의우충은 경북의 선산지역의 전래설화로 ‘김기년이 밭을 갈고 있을 때 호랑이가 나타나 덤비는 것을 소가 보고 호랑이와 싸워 쫓았으며, 얼마 후 주인이 죽자 소도 삼일 후에 죽었다. 그리하여 당시 부사가 이 사실을 돌에 새겨 주인 무덤가에 세웠다’는 설화가 있는 곳이다.
- 38) 고경명(1533~1592)은 조선중기 문신이며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의병장으로 금산전투에서 왜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조현(1544~1592) 역시 조선중기 문신으로 의병장이었다.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靈圭의 僧軍과 합세해 청주를 탈환하였다. 후에 금산전투에서 의병들과 함께 전사하였다.
- 39) 이는 공자의 영정을 봉안한 건물로 1716년에 권상하·김만준·이건명·이이명·김항집 등 송시열의 제자들이 건립하였다.
- 40) ‘의열사’는 이 지역 충신인 백제의 성충·홍수·계백과 고려 후기 충신인 이준오를 위해 부여현감 홍가신이 세운 사당이다. ‘창렬사’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남학사인 윤집, 오달제, 홍익한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병자호란 때 청이 남한산성을 포위했을 때 ‘결사항전을 주장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청의 심상으로 잡혀가 참형을 당하였던 사실’과 그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에 있다.

加佐洞 朴谷 下東 乾止山 紅花 八忠 赤良 東上 西二 東一 東二 海岸 大也洞 彰烈祠 南 勃峴 西過 東下 北三 外北 內北 上西 下西 上北 葛化 下北 北部 西上 南下 豆山 洞山 時方 草長 金下峴 北二 北一 〇山 ⑪ 花山 習永 深河里 文長 東部 開谷 北 東 北亭子 新安 佛恩 北 唐德峙 西 西部 南部 ⑫ 龍 黃 外烟島峰

5.2.1.17 제17첩

본 첩의 제3면에 ‘表忠祠’와 ‘尙德祠’에 대한 기록이 있다. ‘표충사’는 현종 11년(1690)에 건립되었고, 고려의 태사 申崇謙·卜智謙·庚黔弼을 모신 사당이다. 원래 ‘상덕사’로 알려진 곳은 도산서원 뒤쪽에 위치한 건물로, 이황과 조목의 위패를 모신 곳이나, 이 지역의 상덕사는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

추가기록
① 石老津 北 東川 封山 尾曾山 西川 古縣 墨村 ② 東二 南川 佛縣 泉谷 西 川北 金剛山 沙里 高城山 外方 荒川 杞溪 童子山 岩 古村 西 南路東 南路西 西 斷石山 乾川 元堂 內東 南川 古彌 仙岩 李木淵 ③ 阿川 龍川 巨余 朴尾山 三峴 上東 下東 三聖山 上東 中東 下東 榔林店 山底 可見 所當里 尺朴 上東 西 下南 南 上南 葛占峇 外終 內終 赤巖 大良 尙德祠 龍川 松山 居峙 南 北 栢占寺 銀海寺 比習 倭屈峙 安心 北 孤山 玉山 西 松嶺 壽湖 次北 伊西 素川 內西 南西 南岡 水王 高沙洞 ④ 北 東北 杷岩 牛岩山 所也 西北 宿馬 巴弥 芦谷 代占 柿母山 南 道德山 朴德寺 鮮西村 研經 日開縣 僧 毘山 八莒川 退川 上枝 八莒 文朱 伊彦 鮮西部 表忠祠 鮮 道村 河東 河北 河南 河西 霞伊江 老江 東中 新川 西上 西中 西下 平 玉浦 東下 縣內 下守南 下守西 甘勿川 龍淵寺 巨乙山 論工 阻岩山 仁興山 月背山 上守西 天王峯 龍川 東部 瑜伽 末赤 石城山 鳥古 禾谷 大峙 馬山 山田 沙洞 城山 燕岩 活化峯 湧泉寺 南北 水王 高岩 大谷 沃野 ⑤ 所耶江 禾谷 軀南 柳洞 山南 踏溪 北山 鳥刀 草谷 只火峴 南山 沙等 伊川 大良 雲谷 本牙 余巴 知土 大里 德谷 省法山 雲羅 五次 扔峴 明岩 甌山 訖 靑巖 甬卯 東 弓乙山 南 寒松亭 內甘川 丙谷 頭衣谷 赤火 修道 加北 馬項峰見岩寺 普海山 上加南 南 加柞 加東 下加南 新 居山 山於 各寺 熊陽 古毛 毛谷 舞登谷 青林 南興 毛台 知玉 并水 界水里 武陵椿洞 下北 紅流洞 崇山 上洞 下洞 万堡山 餘村 德谷 德眞 外 初丹 二丹 甲山 川谷 東村 縣內 馬峴 加山 仍邑 豆縣 栗津 上三 下三 ⑥ 西 山衣占峙 牛馬峙 天常 陰石 古川馬峯 忽音 鳥谷 骨山峴 草帖 黃谷 川內 東 曹東 草帖 曹南 曹西 橫川 竹川 曳峴 一安 鳳凰峯 北上東 北下東 舊川 古縣 西上 月星峴 榛鶴山 知代 望峙 南里 尋眞川 晋山 栗洞 籠岩 花林川 ⑦ 長古山 東 桐鄉 白巖峯 南 吞田 北 深源庵 二北 效坎峙 西陽 三北 山影峙 東川 竹本峙 興 身北 任南 木丑峙 長安山 分水院 尾洞山 身南 松灘院 一東 二東 二西 盤龍山 西 新興寺 金堂寺 上東 下東 下地 新坪 西 大谷 洛峙 南 大峙 末川 峴 德峴 迪里 只沙 眞田 ⑧ 峙案 五石州 紆東 草谷 龍進 宿東 洞浦 紆西 伊北 南山 伊南 伊西 伊東 北一 東一 府北 宿西 宿南 完山 雨蓀 亂田 迫信 大院寺 新德 上北 葛川 仁 新安 上雲 羽異山 九耳洞 終山峙 洛峙 南 九星淵 水落寺 西 玉田 江津 下雲 榛陽 一北 二北 東 鳳山 下南 上南 下西 縱致川 昇峙 甘山 大川 東村 瓮池 山外 居山 武城 南村 南樂 古縣內 ⑨ 南一 南二 南一 南三 南四 西三 西四 月村 新德 目下山 大岩山 定只山 利北 利東 利西 木淵 馬川 北 望海山 海 南 南二 上男 白石 興朴寺 立川 月山 半山 加鉸山 下道 三道 四道 塩所 上東 上西 下西 江鳥山 龍石山 代末 北部 下東 所山 南下 古山內 行宮 開巖寺 立上 立下 食津 沙谷 東部 後尙山寺 乾先 西二 鳥丘川 ⑩ 望主岩 島

5.2.1.18 제18첩

본 첩의 제3면에는 國農所의 기록이 있다.⁴¹⁾ 또 제4면에는 ‘宣祖癸巳六月金千鎰等 敗死城焰尺 死者六七万人’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선조 계사년(1593) 6월에 김천익이 진주성을 사수하다가

성이 함락되어 김천익 등 여러 명이 남강에 투신자결 하였고 당시 죽은 자가 6~7만 명이었다.

한편 제6면에는 ‘忠烈祠’가 새로 추가되었다. ‘충렬사’는 전북 남원 향교동에 있는 사당으로 정유재란 때 순절한 8인의 위패를 1612년에 창건하여 모신 곳이다. 그곳에는 李福男, 鄭期遠, 任鉉, 金敬老, 申浩, 李德恢, 李元春, 吳應鼎 등도 추향되었다.

추가기록
① 農所 東 內 二水 大和 紅所 靑良 火浦 ② 尺西 旧兵營 上北 中南 熊村 溫陽 中北 長安寺 鐵馬山 雙橋 上西 東 東垓 紅所 上東 下東 北 佐耳 古城 下地 ③ 石骨寺 古於 單充寺 中三東 上東 峰巖 史德山 北 中西 遠忠 谷里 下東 中二東 利川山 上西 下西 上東 龍頭山 上南 國農所 右通加島 北二運 北三運 生林 下東 上東 大上同 活川 仙池 下北 七山 酒村 栗卉 西 東一運 東二運 東三運 古銅 北一運 屯德山 南溪桐 道林 ④ 佳會 阿谷 安愛 良洞 矢山 正谷 毛縣 者山 大谷 沙所 宣祖癸巳六月金千鎰等 敗死城陷尺死者六七萬人 檜洞 省垓 冬勿谷 加伊谷 加島山 當 正水 新曹 ⑤ 池內 沙所 沙開 道北 德谷 栢谷 玉山寺 令石 筆峯 西溪 枹林川 十流川 長興庵 香積峰 花開 ⑥ 古城 東 西 南 黃山 岩山 馬川 山內 赤山 山東 龍岩寺 高所 東丘峰 東道 忠烈祠 者省 西羅 周浦 松內 黑城 大谷 屯山寺 豆洞 牛谷 古栗谷 立坪 水大谷寺 古邑 利治黑岩山 聖德山 ⑦ 德進 伊川 鰲山 玉出山 牛峙 余八谷 奇木谷 山谷 三平 北 松江 東 南 西 內西 靈神川 ⑧ 修道寺 北一 北二 阮德里 花山 邑東 利天城 下青寺 內東 南 永申 南一 三所 牛峙 東 天谷 大峙 巨峙 馬池 內 仙岩 黑石 所占 當天 七石 竹峯山 ⑨ 赤良 佛岬 南行 羅黑山 道休 古縣 宮洞

5.2.1.19 제19첩

추가기록
① 非島 長山 沙川 ② 大下同 木楮島 台也 辰福山 三浦 方山 瑟 代 草理 代叱 熊 祿 古縣 ③ 古內浦 大峙 沒原地 可洞 大屯山 九巧 會賢 永用 ④ 外晋里 西邑內 泗水 上西 內院峙 眞木封山 下二 日開 目卵 屯味 香村 鞍 大口 ⑤ 枝谷 耳谷 目開村 鼎岡祠 加次 ⑥ 加利 古昆明 東部 兩浦 西部 西峴 西良 金鳥山 東 大峙村 葛 捱 校 蛇 泰仁 芙蓉 阿叱伐 牛 尾 ⑦ 袖 田畊 雲 ⑧ 上沙里 別良 內石 外西 內北 栗於 ⑨ 東 上東 下東 長西 龍溪 芦洞 玉岩 芦洞峙 ⑩ 田玉 金甲 非音 古郡 草谷 東郡內 知田 羅川 利占 北一 北二 東峙 栗峙 小屯峙 清溪 西終 豆叱浦 朴谷 ⑪ 玄化 一西 二西 二老村 昆一 八海 新竹老 外邑 ⑫ 新 竹 五 外山永 長 土苔

본 첩 제1면의 ‘沙川面’을 비롯한 면이 총 60곳 추가되었고, 섬의 지명이 쓰이지 않은 섬에 대한 추가가 많다.

5.2.1.20 제20첩

추가기록
① 山 山達 林元 鷗耳 ② 鳥 卮 彌助 艾 二東 三東 只族津 所里 安 金鰲 ③ 件 深四 三島 卓武 廣嶼 隱地五里 虛右億 右岩 松串 浦頭 川浦 道陽 双忠祠 下骨石 ④ 唐島 天蓋寺 水降寺 北戶 綠山 花二 銀所 康津地 蚊所登 所應馬路 所乙馬路 納多馬路 古馬路 石馬路 ⑤ 郡內 內南 牧場 大項 曳邁

본 첩의 제3면에 ‘右岩’을 비롯한 면이 총 13곳 추가되었고 섬의 표기도 많다.

- 41) 國農所는 경남 양산에 설치된 것으로, 조선 초기 국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國屯田이 다시 설치되고, 1418년(태종 18) 우회열이 碧骨堤와 訥堤 아래 陳地를 개간하고 國農所 설치를 제안하여, 토지개간의 장려와 재정수립을 보충하였다가, 세종대에 혁파되어 일반백성의 사유지로 전환되었다.

5.2.1.21 제21첩

본 첩에서는 목판본과 내용이 동일하고 추가기록이 없다.

5.2.1.22 제22첩

추가기록
② 高岳山

본 첩의 제2면에 ‘고악산’이 추가되었다.

6. ‘일본 소재 필사본 『대동여지도』’의 특징과 의미

6.1 울릉도와 독도의 표기

‘鬱陵島와 獨島’ 중 독도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함에도, 일본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만큼 계속적인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東海의 표기와 더불어 이 문제는 지도를 포함한 과거의 기록물 등이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지도에 나타난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먼저 이 지도에 나타난 ‘독도’에 관한 부분을 집중하여 논술했다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인 ‘일본 소재 필사본 『大東輿地圖』’ 第14帖 1面에는 ‘鬱陵島⁴²⁾의 오른쪽에 ‘于山島(獨島)’가 그려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지도는 ‘『大東輿地圖』’ 중에서 獨島가 그려진 필사본으로서 국내외에서 두 번째로 實際로 照査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별한 의의가 있다.⁴³⁾ 왜냐하면, 아래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호의 목판본 『大東輿地圖』에는 독도의 표시가 새겨져 있지 않고, 이 목판본 지도의 筆寫本을 제작하면서 보완되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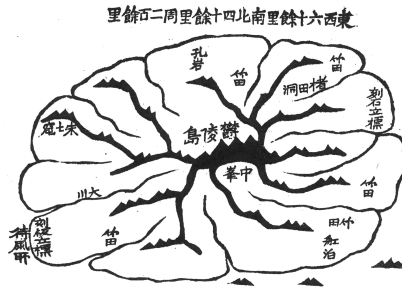
1) <그림 9>와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의 지도 중, 필사본 울릉도 그림의 上部에는 그 ‘註記’ 사항으로 “英宗十一年江原監使趙最壽啓言鬱陵島地廣土沃有人居旧址而其西又有于山島亦廣闊云即所謂西字與此圖之在東相左”⁴⁴⁾라는 기록이 특히 注目된다. 즉, 이는 1735년

42)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울릉도는 원래 于山國의 영토였다가, 511년(智證王 12) 新羅로 병합되었다(『신증 동국여지승람』 제45권, 第35-36張(민족문화추진회 譯, 『신증동국여지승람』 제V권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8), 585-587.). 조선시대에 울릉도와 于山島(독도)는 ‘강원도 蔚珍縣’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독도가 그려진 『大東輿地圖』 필사본으로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한국연구원> 소장 필사본 『大東輿地圖』’ (2011년 5월 13일에 국내 언론 <동아일보>에서 보도됨)이다.

새로 발견한 일본 소재 필사본 「大東輿地圖」의 서지적 연구

(英宗(英祖) 11)에 강원감사 趙最壽가 울릉도를 시찰한 내용을 狀啓로 올린 사항이고, 여기에는 ‘于山島는 울릉도의 동쪽에 있다’라는 사항을 註記의 일부로 摘記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김정호의 목판본(辛酉) 울릉도



<그림 9> 한국연구원 소장 필사본 울릉도·독도



<그림 10> 일본 소재 필사본 울릉도·독도

왜냐하면, 「大東輿地圖」를 제작한 김정호의 「靑邱圖」以前의 지도에서는 ‘于山島가 울릉도의 왼쪽(西)에 표시된 지도’가 전래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筆寫本 「大東輿地圖」를 제작할 때 이러한 사정을 다시 修正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즉, ① 1424년(世宗 6)에 착수되어 1481년(成宗 12)에 第1稿本이 완성된 「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八道總圖」에는 ‘독도(于山島)가 울릉도의 왼

44) “영조(英祖: 英宗) 11년(1735)에 강원도 감사 趙最壽가 狀啓를 올려 말하기를, ‘울릉도는 땅이 넓고 토지가 비옥하며, 사람이 거주한 옛 터(旧址)가 있다. 그리고 그 서쪽에 于山島가 있는데, 역시 넓고 광활하다’ 하였다. 즉, ‘소위 ‘西’字는 이 지도에서 東 쪽에 있는 것과 서로 다르다.’”

쪽(西)에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⁵⁾ ② 1684~1733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東國全圖』에도 '독도는 울릉도의 왼쪽(西)에 隣接하여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⁶⁾ ③ 1834년(純祖 34)에 김정호가 직접 완성한 彩色 筆寫本 『靑邱圖』에 '독도가 울릉도의 오른쪽(東)에 그려져 있음'⁴⁷⁾을 확인할 수 있다.⁴⁸⁾ ④ 그런데, 위 <그림 8>의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호의 목판본 『大東輿地圖』에는 울릉도의 오른쪽에 독도(于山島)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독도에 관한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아마도 김정호의 목판본 『大東輿地圖』를 製作할 당시에 '于山島(독도)'의 표시를 빠뜨린 것을, 이 지도에서 울릉도의 오른쪽(東)에 事實的으로 補完하여 표시하였음을 特記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2) 김정호의 목판본 『大東輿地圖』(辛酉本: 1861)에서 '울릉도'는 '제15帖 4면'에 인쇄되고 있다. 또한 울릉도의 오른쪽에 '독도'는 판각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대상의 필사본 『大東輿地圖』에는 울릉도는 '제14帖 1면'에 그려 넣으면서 그 오른쪽에 于山島가 그려져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⁴⁹⁾

3) <그림 9>와 <그림 10>에서 울릉도 섬의 上部에 記入된 註記 사항을 주목해서 비교하여 보면, 우선 註記를 記入하는 형식과 각 行의 글자 수까지 同一하고, 地名 등을 기입하는 위치까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글씨를 쓰는 筆法 등이 類似하고 그 品格 또한 높으면서도 상당히 細密하고 精巧함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목판본 『大東輿地圖』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지도로 『東輿圖』(奎 10340)와 『大東方輿全圖』(奎 10341)가 있다. 이 중 『대동방여전도』 목판본과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르나, 글씨 품격으로 보아 중앙의 기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목판본 『大東輿地圖』를 模寫한 『大東輿地圖』가

45) 李燦, 『韓國 古地圖의 發達』(서울: 韓國圖書館學研究院, 1977), 200. <八道總圖> 지도 내용 參照.

4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韓國研究院 古文獻』(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11. <東國全圖> 지도 내용 參照.

4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靑邱圖』(1834년 제작)에 그려진 '울릉도와 于山(독도)의 부분' 지도 참조(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3353335&imageUrl=http%3A%2F%2Fdbstthumb.phinf.naver.net%2F4301_000_1%2F20160303180608009_YB3W8HYZR.jpg%2Fha42_4_i2.jpg%3Ftype%3Dm4500_4500_fst%26wm%3DN&cid=58226&categoryId=58226). 울릉도의 전체적인 모습은 조선후기에 제작된 군현지도책에 수록되어 있는 모습과 유사하다. 가운데 중봉(中峯)을 중심으로 사방의 산줄기가 해안 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도 오른쪽 여백에는 역사가, 그리고 왼쪽 여백에는 울릉도의 산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울릉도의 산물에 대한 기록 중 특이하게 원숭이(狙)가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울릉도 서쪽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주토굴(朱土窟)'이며, 그 외에 죽전, 석장, 저전동 등에 지명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울릉도 동쪽에는 우산도가 세로로 길게 그려져 있으며, 그 안에 우산도의 모습을 따라 산줄기가 그려져 있다(김정호의 지도에서 찾아본 독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53335&cid=58226&categoryId=58226>). 그밖에,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대동여지도』에도 '于山島'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48) 獨島는, 近者에 이르러 일본 측에서 이른바 영토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1906년에 일본인들은 스스로 '日商組合'을 결성하여 [大韓帝國의 鬱陵(鬱島)郡守에게] '輸出稅(수출세)'를 납부하고 독도의 강치 등을 수입하여 갯음을 파악할 수 있다(유미림, "근대기 울릉도 인본인의 납세와 독도 '실효지배'", 『울도군수, 독도를 실효지배하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최, 제13회 영토·영해 강연>(일시: 2017.3.24(금),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27-35. 參考).

49) 즉 김정호의 목판본에 있는 울릉도를 이 필사본에서는 보다 북쪽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14첩에 描寫하였다는 의미이다.

규장각에 두 벌(古 4709-4, 奎 12380)이나 있고 또 국립중앙박물관에 「大東輿地全圖」(M-133)가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⁰⁾

따라서 위와 같이 필사본 「大東輿地圖」가 여러 벌 세밀하고 정교하게 그 註記(地志事項)의 위치 및 글자 수까지 동일하게 記入하면서 제작된 것을 감안하면, 어떠한 이유인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목판으로 「大東輿地圖」를 더 이상 인쇄할 수 없는 상황이 봉착되고, 그 이후에 제작된 필사본 「大東輿地圖」들은 중앙의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4) 위의 <그림 10>의 상부에 기록된 註記에서, 특히 그 王名을 표기하는 사항에서 ‘英宗’으로 特記한 사항은 그야말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英宗’은 조선 말기의 高宗時代까지 ‘英祖’를 指稱한 王名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高宗實錄」에서 그 상세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高宗實錄」 제26권, 高宗26年(1889) 12월 5일(丙子) 1번째 기록에,

賓廳에서 英宗大王의 墓號 望單子를 ‘英祖’로, 諡號望單子를 ‘正文宣武熙敬顯廟’로, 尊號望單子를 ‘中和隆道肅莊彰勳’으로 … 議啓하였다.⁵¹⁾

라 하였다. 그리고 高宗27年(1890) 1월 5일(丙午)의 기록에,

英宗大王에게 올리는 墓號는 ‘英祖’로, 고쳐서 올리는 諡號는 ‘正文 宣武 熙敬 顯廟’로, 追上하는 尊號는 ‘中和 隆道 肅莊 彰勳’으로 하였다.⁵²⁾

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高宗實錄」의 두 기록에 입각하면, 지금 우리가 ‘英祖’로 지칭하는 王名은 ‘1890년 1월 5일’부터 비로소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英宗’으로 호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英宗’이라는 왕명은 ‘1889년’말까지만 호칭되면서 각종 공식문서 등에 사용되었고, 1890년부터는 ‘英祖’로 기록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위 「高宗實錄」에서 파악되는 ‘英宗’이라고 表記된 사항을 端緒로 하여 본고에서 논의되는 筆寫本 「大東輿地圖」의 제작시기는 다음과 같이 규명할 수 있다. 즉, 이 지도는 金正浩의 목판본(甲子本)이 간행된 1864년⁵³⁾ 이후 어느 시기부터 英祖가 ‘英宗’으로 지칭된 마지막 년도인 1889년

50) 김기혁, “우리나라 도서관·박물관 소장 고지도와 大東輿地圖,” <한국고지도연구학회 학술대회(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08.2.)>, 19-20. 참조.

51) 「高宗實錄」 제26권, 高宗 26년(1889) 12월 5일, 丙子 1번째 기사. / 賓廳에서 英宗대왕과 正선왕후, 正순왕후의 망단자를 의계하다.

52) 「高宗實錄」 제27권, 高宗 27년(1890) 1월 5일 丙午의 기사. / 근정전에 나아가 尊號 追上을 稱慶하고 進賀를 받고 頒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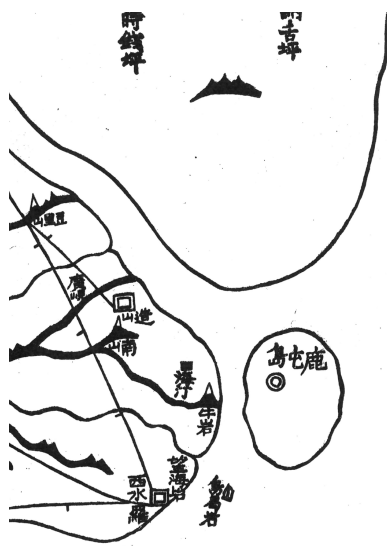
53) 이 筆寫本の 表紙에 ‘當宁(哲宗)十二年(辛酉: 1861)’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김정호의 「大東輿地圖」 목판본 初版이 간행된 년도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김정호의 목판본의 초판(辛酉本)은 20帖으로 구성되어 있고, 1864년

사이의 그 어느 시기에 제작되었을 개연성이 아주 농후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일본 소재 필사본 『大東輿地圖』의 製作時期는 1864년 이후 어느 시기부터 1889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糾明할 수 있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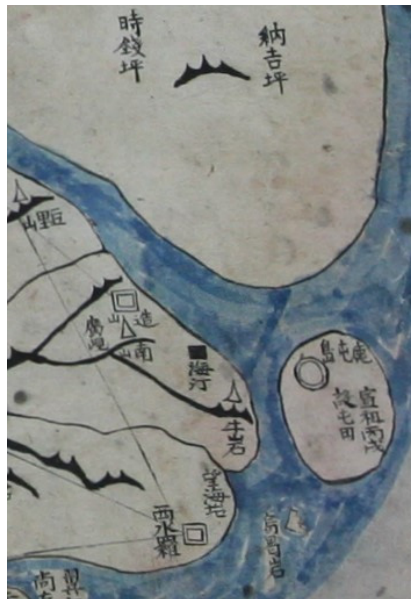
6.2 두만강 하구 鹿屯島의 기록과 표기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정호의 목판본(辛酉本)에 ‘녹둔도’는 이 지도의 第2帖 1面에서, 두만강 하구에 ‘섬의 모양’이 표시되고 그 섬 속에 ‘鹿屯島’라는 지명이 표시되어 있으며, ‘◎’라는 地圖標에서 ‘邑治의 有城’ 표시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범한 작은 섬으로 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대상인 ‘일본 소재 필사본 『大東輿地圖』’에서는, <그림 12>(第2帖 1面)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섬 圖面 속의 작은 여백에 ‘宣祖丙戌設屯田’ 즉, ‘宣祖19年 丙戌(1586)에 屯田을 設置하였다’라는 註記 사항을 특별하게 記入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필사본 『大東輿地圖』에서는 왜 녹둔도의 섬 모양 속에 ‘宣祖丙戌設屯田’이라는 註記 사항을 굳이 표시하고 있는가?



<그림 11> 목판본의 녹둔도



<그림 12> 필사본의 녹둔도

에 수정된 甲子本은 22帖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대상의 필사본 地圖도 22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필사본은 甲子本을 模寫한 것이라 판단된다.

- 54) 종래 언론에서는, “독도가 그려진 대동여지도 필사본, 국내 첫 발견”이라는 ‘한국연구원 소장 필사본 대동여지도’에 대하여, 이 지도에 記入된 ‘英宗’이라는 王名을 指摘하면서 ‘한국연구원 소장 대동여지도는 1861년부터 1897년 사이에 필사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동아일보, 2011년 5월 13일. 기사 참조 요).

‘녹둔도’는 『朝鮮王朝實錄』에 조선 前期부터 ‘沙次麻島(沙穴麻島)’⁵⁵⁾라는 異稱으로 등장하는 곳으로, 두만강의 하구인 삼각주의 하나였다가 섬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섬이다. 녹둔도는 조선초기부터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의 방비와 여진족의 내륙침입을 막고 견제하는 데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로 이용되었다. 녹둔도가 朝鮮의 영역이 된 것은, 世宗 때에 六鎭의 개척 당시에 慶興府에 행정적으로 소속되면서부터이다. 이 때 녹둔도는 ‘경흥부 造山堡’에 소속되었고 조산보의 萬戶가 관할했는데, 군사적 거점으로서 기능은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녹둔도는 ‘農堡’⁵⁶⁾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屯田을 설치해서 혹은 농민들이 왕래하며 농사를 경영하던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⁵⁷⁾

이와 같은 녹둔도에 관하여, <그림 12>에 보는 바와 같이, 그 섬 속에 ‘宣祖丙戌設屯田(선조 丙戌(1586)년에 둔전을 설치하였다)’라고 註記한 사항을 주목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색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선조실록』에서, 1583년(선조 16)에 정언신이 군량을 비축하기 위해 녹둔도에 둔전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1586년(丙戌: 선조 19)에 조정에서는 선전관 김경눌을 屯田官으로 파견하여 木柵을 설치하고, 南道 군역에서 빠진 군병을 농부로 삼아 농지를 개간하게 하였다. 녹둔도와 연관된 사건과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것은, 李舜臣이 만호로 있을 때 벌어진 野人의 습격이다. 즉, 1587년에 조산보 만호였던 이순신은 녹둔도의 둔전도 담당하였다. 당시 9월에 녹둔도에서 추수를 거행할 즈음, 여진의 추장 兀尼應介와 沙送阿 등이 두만강 하구의 楸島에 무리를 모아 공격해 왔다. 이 때 녹둔도의 수호장 吳亨과 감타관 임경번이 모두 전사하였으며, 경흥부사 이경록과 이순신이 힘을 다해 막았으나 결국 참패를 겪었다.⁵⁸⁾ 다행히 마니웅개가 참호를 넘어 쳐들어오면서 이몽서와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자 나머지 적병들이 모두 도망갔으며, 이순신이 그들을 뒤쫓아 포로가 된 농민들을 되찾고, 적병들을 참하고 돌아와서 사건의 결말은 조선군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이순신 등의 죄를 물으려다 백의종군토록 하였다. 이처럼 녹둔도는 조선시대 변경의 주요한 군사기지이며 영토로서 인식되던 역사적 유래가 깊은 곳이기도 하였다.⁵⁹⁾

위와 같은 녹둔도의 역사를 참조하면, <그림 12>의 註記는, ‘1586년(丙戌)에 屯田을 설치하고 여진족의 침략을 방어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녹둔도는 조선 초기 뿐만 아니라 朝鮮 中期에도 軍士를 주둔시키면서 국토를 방위한 장소인, 명실상부한 조선의 영토였음을 상징적으로 기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55) ‘慶興府事例’, 『읍지 13, 함경도』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6), 281-283. “鹿屯島, 一名沙次麻島 在 府東七十里”

56) “[경흥]부(府)의 남쪽 56리에 있다. 흙으로 쌓았다. 둘레는 1천2백47척, 높이 6척, 두만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서 造山浦까지가 20리인데, 兵船이 있고 造山萬戶가 관장한다. 여름에는 본포의 水軍이 여기에 나누어 주둔한다(민족문화추진회,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0, 경흥도호부, 328.).

57) 이왕무, “조선시대 녹둔도(鹿屯島)의 역사와 영역 변화,”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1호(2011), 122.

58) 『宣祖實錄』, 선조 20년 12월 경진.

59) 이왕무(2011), 124-125. 참고.

녹둔도와 관련한 19세기 후기의 사항으로는, 먼저 국제적 상황으로 1860년에 淸國과 러시아 사이에 북경조약이 체결되어 연해주 땅이 러시아 소유로 넘어갔고, 러시아는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不凍港을 얻게 됨과 동시에 조선과 두만강을 마주하는 국경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은 1864년에 高宗이 등극하고 나서야 비로소 녹둔도의 가치를 파악하고 그 회복에 힘쓰게 된다. 그리하여 고종은 1882년(高宗 19) 10월에 魚允中을 西北經略使로 명하고, ‘본래 우리 땅인 녹둔도에 가서, 되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보라’⁶⁰⁾고 하였다. 그리고 조선과 러시아 간의 외교관계가 성립되기 전인 1883년, 조선정부에서는 빈번한 러시아인의 통상요청과 자국민의 越境 사태를 살피기 위해 국경지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1899년 청국과 러시아 간의 국경 再勘 때에는 청나라 대표인 吳大徵에게 녹둔도의 반환교섭을 의뢰하였고, 러시아와 국교를 맺은 뒤에도 러시아 공사에게 녹둔도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⁶¹⁾

위와 같은 19세기 후기 1860~1880년대의 녹둔도를 둘러싼 조선과 淸國 및 러시아 간의 영토 소유권 문제에 휘말려 있었음을 주목하면, 이 ‘일본 소재 필사본 『大東輿地圖』’의 녹둔도 속에 ‘宣祖丙戌設屯田(선조 丙戌(1586)년에 둔전을 설치하였다)’라는 註記를 기입한 배경 및 근거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註記는, 녹둔도가 조선시대 중기에도 屯田을 설치하면서까지 우리의 영토로 固守한 근거 및 증거 자료로 記入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인 ‘일본 소재 필사본 『大東輿地圖』’의 제작시기는, ‘울릉도와 독도’ 사항에서 추정된 바와 같이, ‘1864년 이후 어느 시기부터 1889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더욱 명확하게 하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⁶²⁾

7. 결 론

이상의 본론에서는 ‘일본 소재 필사본 『大東輿地圖』’에 관하여 서지학적 측면에서 기존 판본들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 필사본만이 가진 특징적인 측면들을 導出하여 보았다. 그 특징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지도의 전체적인 규모는 목판본(『大東輿地圖』 辛酉本, 甲子本)과 같이 22帖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첩된 全帙은 사각의 冊匣으로 한 질을 이루고 있다. 이 지도는 목판본 지도를 模寫하였다고 할 만큼 筆寫하여 그린 것으로 지명과 자연경관, 역사기록 등을 기록하고 지역별로 채색하였다.

60) 『高宗實錄』 19권, 고종 19년 10월 12일(乙丑) 1번째 기사. 양계의 변방 시장에 회시하는 일에 대해, 魚允中을 西北經略使에 임명하다.

61) 이왕무(2011), 139.

62) 大韓帝國(1897~1906) 시기에 접어들면서, 녹둔도에 대한 조선 政府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어, 『俄國輿地圖』가 탄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 소재 필사본 『大東輿地圖』에 표시된 녹둔도에 관한 사항은 『아국여지도』의 제작에 基盤이 되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둘째, 표지에 쓰인 제목과 간행년, 김정호의 교정기록은 목판을 그대로 모사하였으나, 특히 간행년 부분 중 초판에서 보이는 ‘當寧十二年辛酉’라는 기록에서의 ‘當寧’부분이 ‘哲宗’으로 고쳐져 있음을 볼 때, 필사본이 제작된 시기는 高宗年間으로 추정된다. 그 구체적인 시기는 ‘1864년 이후의 어느 시기부터 1889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糾明된다. ‘울릉도와 독도’ 사항에서 ‘英祖’를 ‘英宗’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 소재 필사본 『大東輿地圖』’에는 목판본 『大東輿地圖』에 표시되지 않은 ‘于山島(獨島)’도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지도임이 파악된다. 또한 이 지도 세밀하고 엄정하면서도 품격높게 보완된 작품인 동시에, 이와 같은 유형의 필사 지도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중앙의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넷째, 수록 내용의 특징 중에서 지역별로 행정구역상의 ‘面’에 대한 地名을 1,500여 건이나 보충하였으며, 그 아래 일부 邑・里・洞까지 기술한 것도 있다. 그 밖에 지형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다.

- ① 자연지형: 산, 강, 재(岨), 고개 등
- ② 건축물: 궁전, 누정, 사당(祠堂: 祠寧) 등
- ③ 관청: 관아, 역참 등
- ④ 역사 인물과 사건에 관련한 지명 기록: 임진왜란 격전지, 순국인물 등
- ⑤ 지역의 시대 변천: 고구려, 백제, 신라 때의 서로 다른 異名.
- ⑥ 도서(島嶼)지역에 관련된 기록: 섬 포구 등

다섯째, 연구 대상의 본 필사본은, 김정호의 목판본 『大東輿地圖』의 행정구역의 경계와 도로망을 기본으로 지형과 지리적인 기록에 근거하고, 실제적인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무려 2,000여 건의 관련 기록을 보충하였다는 점에서 큰 意義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연계된 능・성・누정 등과 유적을 기록해 덩어리째 지도와 지리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의도를 가지고 편찬한 것으로, 김정호의 본래 취지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전의 종래 책자형 지도는 휴대하기 불편하고 찾아보기 및 축적의 표시가 어려웠다. 절첩본으로 개량된 『大東輿地圖』는 형태적으로 책자형 지도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南北과 東西를 자유롭게 연결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목판본 지도의 제작은 국토정보의 이용을 대중화하려는 의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이런 까닭에 본 연구 대상의 필사본 지도에서는 목판본의 정보에 매우 더 많은 정보를 상세하게 추가・보완함으로써 지리정보와 地理志로서의 가치를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인 ‘일본 소재 필사본 『大東輿地圖』’는 조선 후기 고종 때에, 앞서 제작된 辛酉本 및 甲子本을 底本으로 筆寫하고, 地域과 관련된 地理志 내용을 더 補充하여 記錄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판본에 관각된 기록은 빠뜨린 것이 많지 않고, 무려 2千餘件이나 되는 지명 및 地志 사항 등을 補完함으로써 당시 국토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기여하고자 한 제작의도를 엿볼 수 있다.

요컨대, ‘日本 所在 筆寫本『大東輿地圖』’를 綜合的으로 평가한다면, 金正浩의 木板本『大東輿地圖』를 底本으로 하였으면서도 그 地名 및 관련 地誌의 內容을 大폭 追加하고 補完하여 製作된 地圖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김정호의 목판본『대동여지도』보다 그 正確性이나 實用的인 면에서 훨씬 더 큰 價値를 附與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評價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국립경주박물관·상주박물관. 『慶尙地圖 1314-1896』. 상주: 상주박물관, 2014.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대동여지도 간행 1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김정호의 꿈, 대동여지도의 탄생』.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1.
- 국립지리원.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자료집』. 수원: 국립지리원, 2001.
- 국토지리정보원. 『대동여지도 판본 연구』. 양평: 생각집표, 2015.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 지도학 발달사』. 수원: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09.
- 대동여지도 150주년 기념 학술사업 준비위원회. 『대동여지도 15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대동여지도에 길을 묻다』. 서울: 대동여지도 150주년 기념 학술사업 준비위원회, 2011.
- 민족문화추진회 譯. 『신증동국여지승람』 IV·V.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8.
- 방동인. 『韓國地圖의 歷史』. 서울: 신구문화사, 2001.
- 원경렬. 『大東輿地圖의 研究』. 서울: 성지문화사, 1991.
- 이상태. 『한국 고지도 발달사』. 서울: 해안, 1999.
- 李燦. “韓國 古地圖의 發達.” 『韓國 古地圖』. 서울: 韓國圖書館學研究會, 1977.
- 平壤府立圖書館. 『平壤府立圖書館要覽』. 平壤: 平壤府立圖書館, 昭和六年 三月.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韓國研究院 古文獻』.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논문]

- 金庚星. “韓國古地圖에 關한 研究.” 『地理學論叢』 제4호(1977). 17-24.
- 김기혁. “우리나라 도서관·박물관 소장 고지도와 『대동여지도』.” 『한국고지도연구학회 학술대회』 (2008. 2). 1-24.
- 박영한. “고산자 김정호의 생애 고찰.” 『지리학논총』 42(2003). 1-16.
- 배우성. “『대동여지도』와 조선후기사 연구.” 『한국고지도연구학회』 제2호(2008). 25-47.
- 徐好錫. “韓國古地圖의 歷史地理的 考察.” 『私學』 제38호(1986). 119-126.
- 소재구. “金正浩 原作 大東輿地圖 木板의 調査.” 『미술자료』. 1997.

- 양보경. “대동여지도.” 『韓國史市民講座』 제23권호(1998). 45-59.
- 유미림. “근대기 울릉도 인본인의 남세와 독도 ‘실효지배’.” 『울도군수, 독도를 실효지배하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최, 제13회 영토 영해 강연>(일시: 2017. 3. 24(금),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자료.
- 이기봉. “『대동여지도』와 『대동지지』.” 『한국고지도연구학회』 제2호(2008). 48-78.
- 이기봉. “19세기 한국에서 김정호의 대중적인 대축척 지도 제작.” 『한국고지도연구』 제8권 제1호(2016). 133-140.
- 李相泰. “고산자 김정호의 생애와 사상.” 『대한지리학회지』 제26권 제2호(1991). 139-150.
- 李相泰. “한국고지도 발달사.” 『한국지도학회지』 제7권 제1호(2007). 31-43.
- 이왕무. “조선시대 녹둔도(鹿屯島)의 역사와 영역 변화.” 『정신문화연구』 34권 1호(2011). 119-150.
- 임종옥. “목판본 『대동여지도』와 『청구도』의 지명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1.
- 임종옥 외. “목판본 『大東輿地圖』의 지명 연구.”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제22권 제3호(2010). 122-141.
- 장상훈. “목판본 『대동여지도』 판본 비교 연구.” 『한국고지도연구학회』 제2호(2008). 41-47.
- 장진숙.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대동여지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8.
- 장진숙 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대동여지도』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제6권 제2호(2014). 19-50.
- 정철현. “김정호의 지도제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3.
- 紙資料修復工房. “『大東輿地圖』 1点 22冊への 賦存修復 處置報告書.” 東京: 紙資料修復工房, 2017.

[웹사이트]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www.aks.ac.kr>>.
- 한국고전종합DB, <<http://www.itkc.or.kr>>.

